



창 간 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 윤 용

옛날부터 태권도는 “군자(君子)의 무술(武術)”이라고 하여 왔습니다. 이 말은 정신을 정화(淨化)시키고 평화를 기반으로 한 태권도의 극치에 도달하면 반드시 예의에 밝고 공손하고 온화하며, 강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청렴결백(淸廉潔白)한 마음과 행동을 갖는다는 데서 온 것입니다. 즉, 태권도는 승패 궁극적으로 하는 무술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수련을 통하여 인간성을 완성하는 술(術)이요 도(道)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권도의 종주국(宗主國)인 우리 한국 국제적인 스포츠로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사명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세계를 한 우리의 자세가 의연(毅然)하자면 종주국으로서의 전면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사명감과 희원(希願)이 비 오늘날에 와서 대두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랜 신념이었으며 숙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광범한 보급에 힘썼음은 물론, 세계 무대에서 국위(國威)를 선양(宣揚)하여 국제태권도의 역량을 과시하여 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31개 경기단체 총 경기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130만명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태도 종주국으로서의 전면도를 갖추지 못하여 왔 것도 주기의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태권도협회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숙원 해결의 계를 수립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태권도 센터의 건립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지의 발행인 것입니다.

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최초의 《태권도》지가 창간된다는 이 기쁨은 실로 가슴 벅차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태권도》지는 태권도인들의 대화(對話)의 광장(廣場)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롭고 산 지식을 쌓고 양식의 거울로 삼는 교량적(橋梁的) 역할을 다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여 줄 것이며 밝은 내일을 위한 빛이 되려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경기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태권도 경기인구의 저변확대(底邊擴大)를 위한 보급체제과 기간협회(基幹協會)가 베푸는 교육체제 및 교범(敎範)의 통일에도 다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태권도의 일사불란한 단결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한국 태권도가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실력에 손색이 없도록 하여 의연한 자세로 국제무대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완수하는 길잡이가 될 줄로 믿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체육은 고립될 수 없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체득보다는 태권도의 진리를 체득(體得)하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한 스스로 새로운 양식을 갖추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문명과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완성된 인간성의 회구는 잠시도 잊었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철학이 없는 곳에서 영광과 번영을 기대하기란 어리석은 것을 숙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나 국가에 있어서는 물론 한 사회, 한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숙원이 이루어진 이 간격과 부른 희망을 태권도인만이 아니라 전체국민, 전국민이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모든 국민이

즐거 읽는 잡지로

대한 체육 회

회장 민 관 식



근래에 와서 스포츠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가고 있으나 이 중에서도 특히 태권도 인구의 증가 추세는 단연 다른 종목을 앞질러 전체 등록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서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태권도의 종주국(宗主國)다운 발전상(發展相)이며 앞으로 더욱 큰 비약이 기대되는 바람직한 경향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권도 인구의 확대는 국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의 생활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한 뿐 아니라 태권도를 통한 해외(海外)에 있어서의 국위선양(國威宣揚)에 두드러진 역할을 다하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기관지 <태권도>를 발간(發刊)하게 되었음은 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반갑고도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경기인구의 확대와 기술의 향상 및 경기인의 자질향상의 자료로서, 그리고 자체사업의 대외홍보(對外弘報) 등의 다목적(多目的)을 가지고 몇몇 경기단체가 근자에 기관지를 발행하여 왔고 제 나름대로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터에 가장 많은 인구와 보급률(普及率)을 갖는 태권도에 이 기관지가 큰 공헌을 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간(季刊)이 아닌 월간(月刊)으로서, 그리고 단순한 기관지로서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즐겨 읽힐 수 있는 폭넓은 잡지로서 출발해 줬으면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욕심은 간행의 회수를 거듭하여 감에 따라 자연 충족되어 나아 가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이 <태권도>지가 130만 태권도인의 반려(伴侶)로서, 그리고 국민과 태권도계 사이의 교량(橋梁)의 구실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 무궁한 발전을 빌어 마치 않습니다.

태권도사

跆拳道史

趙琬默

History Of Korean Tae Kwon Do



by 'Cho Wan Mook



고구려(高句麗) 태권도(跆拳道) 유적(遺蹟)의 고분(古墳) 벽화(壁畵). 고구려의 국도(國都)였던 환도성(丸都城)에 있는 고구려시대 고분 중에 무용총(舞踊塚) 주실(主室) 천장(天障) 벽(壁)에 명확하게 그려진 태권도 대련(對練) 장면. 두 사나이가 바야흐로 마주 서서 네팔개를 펴고 돌이치려는 상격(相擊)의 찰나(刹那)를 상징한 필치(筆致)로 묘사(描寫)해 놓았다.

◆ 차례 ◆

- | | |
|--|--|
| 제 1 장 한국 고대(古代)의 체육 | 제 2 절 중국 송(宋) 시대의 외가(外家) |
| 제 2 장 삼국시대(三國時代)의 태권도 | 와 내가(內家)의 파생(派生) |
| 제 1 절 고구려(高句麗) 환도성(丸都城)의 유적(遺蹟) | 제 3 절 일본(日本) KARATE(空手)의 원조(元祖) |
| 제 2 절 신라(新羅) 화랑도(花郎徒)의 심신 수련(心身修鍊)과 무예(武藝) | 제 4 장 고려 시대(高麗時代)의 수박치(手搏戰) |
| 제 3 절 "태권" 어원(語源) 고찰(考察) | 제 5 장 이조 시대(李朝時代) 수박(手搏) 경기(競技)의 대중화(大衆化) |
| 제 3 장 태권도(跆拳道)와 중국 권법(中國拳法)의 비교(比較) 검토(檢討) | 제 6 장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권법(拳法) 자세(姿勢)의 분석(分析) |
| 제 1 절 태권도 원류(源流)와 중국 소림사(少林寺) 권법의 발생 연대(發生年代) 고증(考證) | 제 7 장 태권도의 현황(現況) |

제 1 장 한국 고대(古代)의 체육

어떤 민족(民族)이든 간에 그 원시시대(原始時代)에 있어서는 무기(鬪技)가 유일한 체육적 활동이었다.

이러한 투쟁 행위는 오직 생존을 위한 식물(食物)의 획득과 외적(外敵)을 방위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이었다.

인간이 보다 효율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 무기(武器)를 발명하기 이전까지는 순전히 육체적 능력만으로 적과 대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힘만으로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세할 수 없다는 경험에서 무기를 만들어 내는 지혜가 생겼다. 이 무기의 발생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원점(原點)이 되었다.

인간이 무기를 사용하게 되어서도 자기의 체력을 튼튼하게 육성하려는 생존의식(生存意識)은 마찬가지로 상성하였다.

이러한 본능적 성향(性向)은 유희(遊戲) 행동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

베르나아르·질레(Bernard Gillet)는 「스포츠의 역사」(Histoire du Sport) 가운데서, “인간이 그 초기(初期)의 유희에서는 자기의 체력(體力)을 발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힘에 의해서 그는 식물을 획득하고 야수(野獸) 혹은 적을 무찌러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발휘한 능력이나 기량(技倆)에 대해서 신령님이 무관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로써 오랜 세월을 내려오는 동안 신체를 단련하는 스포츠 행사는 종교적 의식(儀式)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왔던 것이다.” (Collection QUE SAIS-JE? No 337:p.21)

말하자면, 원시인(原始人)의 생활은 육체행동이었고, 이것이 곧 스포츠 활동이 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활동은 종교와 결부되어 일종의 구체적인 행사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민족도 역시 이와 같은 원시인의 생태 과정(生態過程)을 겪고 백두산(白頭山)을 중심으로 한 이 땅에서 생활을 영위해 왔었다.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이후 이 땅에서 생활

한 우리의 선인(先人)들은 이미 활(弓矢)을 비롯한 무기의 사용과 아울러 종교적 의식으로 유희를 행하여 신체 강건(強健)을 도모하였 [靈植學會: 韓國史 古代篇, 崔南善: 故事通, 安在鴻: 朝古史鑑 上卷, 權應奎: 朝鮮留記,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洪以聖: 朝鮮科學史 p.13~35]

부여(夫餘)의 영고(迎鼓), 고구려(高句麗) 동맹(東盟), 예(濊)와 마한(馬韓)의 무천(舞天) 신라(新羅)의 가비(嘉俳) 같은 행사는 그러한 리 선조(先祖)들의 종교 의식으로서의 스포츠적인 유희 활동을 실증(實證)하는 사실(史實)이며, 이것은 곧 오늘날의 전국체육제전(全國體育祭典)에 비길만한 규모있는 행사이기도 했었다.

이 원시적 종교 의식에 따르는 체육활동은 우리의 선인(先人)들은 신체 건강을 위한 활동을 했고, 이것은 양생술(養生術: 保健運動) 또는 무예(武藝)로도 발전하였다. 도수(徒手) 경에 있어서는 동물의 습격을 막는 자세라든 혹은 동물의 공격·방어 하는 자세에서 본만 테를 경험에 의해 차차 체계화함으로써 그 기은 태권(태권도)의 원형(原型)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제 2 장 삼국시대(三國時代)의 태권도

신라(新羅)·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가 립(鼎立)하여 영토 분쟁과 각기 사회(社會)화(文化)의 발달을 이룬 시대로서, 신라는 한반도(韓半島)의 남동방 서라벌 일대에서 B.C.5 나라를 세우고, 고구려는 압록강(鴨綠江) 중출본천(卒本川) 기슭에서 B. C. 37에 나라가 으며, 백제는 한반도 중간 지점에 위례성(慰禮城)을 근거 삼아 B. C. 18에 나라를 이룩했다. 이 3국은 서로 영토를 넓히려고 뺏고 뺏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면서도 나름대로의 회와 문화를 이룬 민족국가(民族國家)로 성장다.

이 삼국시대에 심신(心身) 단련(鍛鍊) 또는 예(武藝) 수련(修鍊)의 방법으로서 태권도가 해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환도성 산성(山城).
만주 졸안현(遼洲縣) 통구(通溝)에 남아 있는 고구려시대 산성
중앙에 남문(南門)이 있던 자리가
보인다. 이곳에 수많은 고구려시대
고분(古墳)이 있다.

1절 고구려(高句麗) 환도성(丸都城)의 (遺蹟)

고구려의 문화는 우리 민족문화(民族文化)의
黎明으로서 찬란한 광채를 던지고 있다.
한문시대(漢四郡時代)의 낙랑(樂浪)이 대동
同江)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의 꽃을 피웠
낙랑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질세 풍기는 것

하나 고구려는 만주(滿洲) 동북쪽에 있던 부
夫餘國)에서 갈라져 동가강(修佳江) 유역
지하고 신흥(新興)한 국가로서 독창적(獨
창)인 문화를 형성했었다.

고구려의 건국(建國)은 B. C. 37이었으니, 이
중국 한(漢)나라 원제(元帝) 건소(建昭) 2
다.

고구려는 처음에 동명성왕(東明聖王)이 졸본
(卒本)에 자리잡고 도읍(都邑)을 정했다
대조영(瑠璃王) 22년(A. C. 3)에 국내성(國內
城)으로 이도(移都)하고 206년간을 지내다가
산상왕(山上王) 13년(A. C. 209)에 환도성
(丸都城)으로 정하여 218년간을 지내고, 평양(平
壤)이도(移都)는 장수왕(長壽王) 15년(A. C.
427)이다.

1935년에 일본인 사학(史學) 관계자들로 구성
된 <제2기(第2期) 고구려 유적 조사단(高句麗遺
蹟調査團)>은, 고구려의 국도(國都)였던 환도성
(丸都城)인 통구(滿洲通化省輯安縣通溝) 지방을
답사(踏査)하고 고구려시대 고분(古墳)을 조사
했었다. 이때 각저총(角抵塚)과 무용총(舞踊塚)
등 고분의 벽화(壁畵)를 발견하게 되었다. (李弘
植: 高句麗 遺蹟 調査の 歷程(白山學報 제1호 P. 165~168)

이 각저총과 무용총 사방 벽면(壁面)과 천장
(天障)에는, 고구려인(高句麗人)들의 생활을 나
타낸 그림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 가운데
각저총 벽화에는 두 사람이 맞붙어 씨름 하는
그림이 있고, 무용총에는 여인(女人)들이 가무
(歌舞)하는 벽화와 아울러 현실(玄室) 천장(天
障) 지송부(持送部)에는 두 장사(壯士)가 태권
도(跆拳道)를 경기(競技)하는 대련(對鍊) 자세
(姿勢)의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은 바야흐로 쌍방이 서로 공격하려는
참나(刺那)의 광경을 그린 것으로서 참으로 기
운찬 필치(筆致)로 그려져 있다.

고분에 풍속도(風俗圖)를 벽화로 나타낸 것은
고구려에서 특히 발달한 것인데, 여기 고분 벽
화의 제재(題材)는 그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의
생전의 행적(行蹟)을 나타냈다는지 혹은 그 사

람을 장례 지낼 때 있었던 사실이나 행사의 모양을 묘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용총의 태권도 대련형(對鍊型) 그림은 피장자(被葬者)가 생전에 태권을 행했든지 아니면 그의 장의 행렬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사람들이 가무(歌舞)와 아울러 태권을 행한 모양을 그린 그림일 것이다. [齊藤忠朝 朝鮮古代文化の研究 P. 78~81]

장의 행렬에서 가무를 하는 풍습(風習)은 일찍이 중국(中國) 조선(朝鮮) 일본(日本)에서 있었다는 기록이 사서(史書)에 산견(散見)된다.

환도성(丸都城)은 평안북도(平北) 만포진(滿浦鎭) 대안(對岸)에 있는 여산(如山) 남쪽 통구(通溝) 골짜기 일대(一帶)이다. [金得根: 丸都의回想(白山學報 제1호) P. 191~201] 이곳을 고구려 10대왕 산상왕(山上王)이 그 13년에 국도(國都)로 정하고, 20대왕 장수왕(長壽王)이 그 15년에 평양(平壤)으로 이도(移都)할 때까지 218년간 환도성은 고구려의 서울이었다. 이 연대(年代)는 서기 A. C. 209~A. C. 427이다.

그런데 종래에는 고구려 국도인 국내성(國內城)과 환도성(丸都城)은 서로 별개의 위치라고 사학자(史學者)간에 알려져 왔으나, 일본의 白

鳥庫吉박사는 “환도는 고구려가 그 도성에 붙여 명칭이며, 국내는 환도의 한역명(漢譯名)이라 하여 국내성과 환도성의 동처설(同處說)을 주장하였다. [白鳥庫吉: 滿鮮史研究]

이 白鳥庫吉박사의 연구를 池內宏교수도 찬성 지지하고 현지를 실지 답사해서 조사한 결과 白鳥庫吉박사 설(說)이 확인되기에 이르러, 오늘날에는 국내성과 환도성이 동위치(同位置)라는 설에 사학자의 의견이 유력하게 일치되고 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三國史記)권13 고구려 본기(本記)제1 유리왕(瑠璃王) 조항에 “22년(冬) 10월 임금님이 국도를 국내로 옮겼다(王遷都於國內)”에 의하여 본다면 환도성이 국도로 정해진 연대는 A. C. 3이 된다. 이때로부터 산상왕이 그 13년에 환도성을 더 확장하고는 궁궐(宮闕)을 그 자리에 새로 크게 이룩한 뒤 환도성(丸都城)이라 고쳐 부르고(A. C. 209), 고구려는 날로 강성(强盛)해져서 장수왕 13년(A. C. 427)에 평양으로 국도를 옮길 때까지 통구(通溝)에 고구려 국도가 있던 기간은 A. C. 3~A. C. 427에 달한다. 이 기간은 무릇 424년간이니 된다.

그러므로 환도성 고분들이 이 기간에 조성된

고구려 고분 벽화. 이것은 삼보총(三寶塚)의 벽화로서 무인 공격도(武人攻城圖)인데, 고구려시대 무인이 무기를 들지 않고 태권도 수법으로 적을 무찌르고 있는 참으로 용감한 모습이다.



고 보면, 무용총의 태권도 대련(對鍊) 벽화(壁畵)는 이 424년간의 그 어느 시기에 그려진
을 추찰(推察)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태권도는 이 시기에 벌써
하여졌으리라는 점이다.

하자면, A. C. 3(유리왕 22년) 이후 A. C. 424(장수왕 13년) 이전에 무용총 고분 벽화가 그
다고 본다면, 이 시기 그 전부터 고구려에
태권도가 행하여져 왔으리라는 사실을 무
벽화가 생생하게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런데, 이 환도성의 고분은 그 형식(形式)에
시대적(時代的)인 격차(隔差)가 있다. 고
고분의 고유형식(固有形式)은 석관(石棺)
(系統)에서 발전해온 상형석실(箱形石室)을
(玄室)로 하는 적석총(積石塚)인데, 이것이
러가 평양(平壤)으로 천도(遷都)한 장수왕
(A. C. 427)을 전후하여 이 무렵에 궁륭형
석실(穹窿形天障石室)을 주체(主體)로 하는
분(封土墳)으로 차차 이행(移行)되었고, 이
석실(石室)을 갖춘 봉토분의 시작과 함께
소 벽화(壁畵)가 발생(發生)하였다.

라서 환도성이 있던 통구(通溝)지방에 있는
고분들은 서기 3세기(世紀)와 4세기를 중
로 한 석총(石塚)과 평양으로 국도(國都)를
뒤에 평양에서 귀장(歸葬)한 서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의 토총(土塚) 및 벽화 현실(玄室)의 토총들이 섞여 있다.

그러므로 환도성 고분 중에서도 벽화를 가진
토총들은 시대적으로 서기 5세기 이후에 속한다
고 추측(推測)되고 있다. [金元龍: 高句麗 古墳壁畵의
起源에 對한 研究(靈植學報 제21호) P. 43~44, P. 102]

고구려시대에 태권도를 행하는 벽화가 그려진
무용총(舞踊塚)의 연대(年代)를, 池內宏박사는
“아마도 고구려 하대(下代)의 중기(中期)에 속할
것”이라고 추정(推定)하고 있다. [池內宏·梅原末治
: 〈通溝〉卷下 P. 51]

고구려 하대(下代)의 중기(中期)라면 서기 6
세기 전반기(前半期)를 가리킨 때가 된다. 곧
A. C. 500~550에 해당된다.

그러나, 金元龍씨는, 무용총 벽화 가운데 특히
두 사나이가 태권도 대련(對鍊) 자세의 사이에
그려진 조문(鳥文)(이 鳥文을 〈通溝〉著者들은
“하늘의 상징(象徵)”이라고 추측했다.)의 형식
과 화염형광배(火炎形光背) 형식 및 수렵화(狩獵畵)에 나타난 둥글둥글한 산형(山形)을 이유
로 들어 이 무용총 벽화는 늦어도 서기 6세기초
(初)에 속할 것이라는 의견(意見)을 세웠다.
[高句麗 古墳壁畵의 起源에 對한 研究 P. 47~50]

이 시기는 A. C. 520 이전을 말한다.

이 사학(史學) 연구에 의해 고구려에서 태권



고구려 국도(國都)가 있던 환도성(丸都城)은 만주점안현통구(滿洲輯安縣通溝)의
輯安평야(輯安平野) 북쪽 작은 평야지대로서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은
임록강(鴨綠江) 중류(中流) 북쪽 기슭에 연(沿)한 곳이다.

신라(新羅) 화랑도(花郎徒) 김유신(金庾信)이 무예(武藝)를 수련했다는 인박산(咽薄山) 옛터라고 보도된 현재의 백운산(白雲山). 조선일보(朝鮮日報) 1971년 1월 10일자 보도 지면.



도를 행하는 벽화가 그려진 A.C. 520 이전에 일반적으로 태권도 경기가 성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능히 알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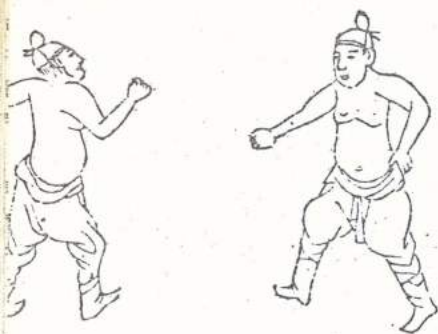
제 2절 신라(新羅) 화랑도(花郎徒)의 심신수련(心身修鍊)과 무예(武藝)

신라는 북방의 고구려가 들어서기 보다 20년이나 앞서서 한반도(韓半島) 남동쪽에서 건국한 나라이다.

신라는 초기에 외적(外敵)의 침입(侵入)이 없어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으나, 백제가 남하(南下)하여 건국(建國)하면서 삼국(三國)이 정립(鼎立)하게 되고 나라가 팽대(膨大)하여지자 자연히 상충적대(相衝敵對)로 무예의 발달을 이루게 되었다. 신라의 무예는 화랑도 수련을 대표적으로 꼽게 된다. 화랑도 5계(戒)의 일월사군(一曰事君以忠), 이월사친이효(二曰事親以孝), 삼월교우이신(三曰交友以信), 사월전전무퇴(四曰臨戰無退), 오월살생유擇(五曰殺生有擇)은 화랑도의 무예 수련의 기본정신이었다. 이러

한 화랑도 정신으로 산천(山川)을涉렵(涉獵)하며 학문(學問)과 무술(武術)을 닦아 신체를 단련한 화랑도는 신라로 하여금 삼국을 통일(統一)하는 주동이 되게끔 하였는데 이들 화랑(花郎)이 무예를 수련하는데 태권도와 같은 도수(徒手) 무술을 행하였으리라는 것은, 고구려의 벽화에서 나타난 태권도 실기(實技)에 비추어 넉넉히 추찰(推察)되는 사실로 되어 있고, 또한 경주(慶州) 석굴암(石窟庵) 금강역사담(金剛力士塔)에 부조(浮彫)된 보살상(菩薩像)과 특히 금강역사담의 두 보살상이 태권도의 대련형(對鍊型)의 막기와 겨누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유적(遺蹟)은 신라에서도 태권도가 행하여진 사실을 증명한다.

신라 화랑도의 무예 수련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 열전(列傳)제1 김유신(金庾信) 기록에 있는 바, 김유신이 중약(中嶽)과 인박산(咽薄山)으로 홀로 들어가 하늘에 고하고 무예를 수련했다는 사실은 무술(武術) 연마에 보다는 정신수양(精神修養)에 더 중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예 수련 과정에 있



무예도보통지 권법

검술(劍術) 수련 이전에 정신 통일을 위한 동작(基本動作)으로서 태권도 행해졌으리라는 것은 넉넉히 추찰(推察)되는 바이다.

유신이 무예 수련을 한 인박산 수련장의 터 최근 경북 월성군(慶北月城郡) 백운산(白雲山)에서 발견했다는 보도는 [朝鮮日報 1971년 1월 10일지, 1월 15일지, 1월 30일지 參照] 앞으로 (斯界)의 답사(踏査) 연구(研究)가 있어야 (考證)이 될 문제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화랑도의 무예에는 우선 민족적인 실체 단련으로 태권도가 병행(並行)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사적(史籍)이 발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추찰이지만,으로서 우리의 최고(最古) 문헌(文獻)인 삼국사(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편린적(鱗的)인 기록을 종합하면 넉넉히 인지(認知)할 수 있다.

또한 태권도를 우리의 옛 문헌(文獻)에는 수(手搏, 手拍), 수벽(手擊), 탁견(托肩)이라 기 가운데, 탁견의 어원은 모름지기 신라어(羅語)로서 한자(漢字)로 차자(借字)한 이두(吏讀文)이라는 점이다.

이 탁견은 한자로 <탁견>(托肩)이지만 원래(原)으로 불려오고 있음으로 보아 그 어원은 순(純)말일세 한글으로 글자를 빌어 쓴 태문(泰文)이 변하였으리라는 심증이 깊다.

제3장 태권도(跆拳道)와 중국 권법(中國拳法)의 비교(比較) 검토(檢討)

상술한 바와 같이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固有)의 무예로 발생하여 행하여진 것이다.

고구려 시대의 태권도와 신라 시대의 화랑도가 행한 탁견이 그것을 실증해 준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후세(後世)에 와서 사대사상(事大思想)에 젖은 탓으로 중국의 권법(拳法)을 받아들여 전래(傳來)된 것처럼 왜곡(歪曲)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오류(誤謬)가 아닐 수 없다.

제1절 태권도 원류(源流)와 중국 소림사 권법(少林寺拳法)의 발생 연대(發生年代) 고증(考證)

전시대(前時代)의 태권도를 경기하는 방식(方式)을 오늘날 전하는 책으로는 오로지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가 있다.

무예도보통지는 조선창조(朝鮮王朝) 정조(正祖)인금님의 명령으로, 규장각 검서관(奎章閣檢書官)이었던 이덕무(李德懋)로 하여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병서(兵書) 및 각종 문헌(文獻)을 참고하고, 어회장군(禦梅將軍)인 박제가(朴齊家)로 하여금 편찬토록 해서 정조 14년(A. C. 1790)에 간행된 무술(武術)을 배우는 책이다.

이 책은 목각본(木刻本)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언해본(諺解本) 1권이 있어 모두 5책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을 만드는데 참고한 인용서목(引用書目)을 보면, 우리의 문헌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 책에 수록된 24종목의 무예 중에는 중국식(中國式)을 그대로 인용한 무예도 있으나, 본국검(本國劍)이나 마상재(馬上才)같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우리나라 독특한 종목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왜검법(倭劔法) 같은 것은 일본식(日本式)을 배운 것이다.

무예도보통지 권4에 수록된 권법(拳法)에는 총설(總說)에서 권법의 발생(發生)과 내력(來歷)

에 있어서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効新書)와 Ningbo(寧波府志)등만을 인용하여 중국 소림사 권법에 관해 기록했을 뿐, 우리의 삼국시대 태권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우리 문헌이 없었던 까닭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이 권법의 자세(姿勢)와 동작(動作) 등은, 고려(高麗) 중기(中期)에 성행하고, 조선왕조(朝鮮王朝) 초기(初期)까지도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져 내려온 수박희(手搏戲)의 자세와 동작인 것으로 믿어진다. 고구려시대와 조선왕조 시대에는 태권도를 수박희라고 불렀었다.

이 수박희를 작지(鵲旨)라는 마을에서 충청(忠淸)·전라(全羅) 양도(兩道) 사람들이 모여 경기하도록 보급되었음을 볼 때,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4 礪山郡 山川] 이 시대에 중국의 권법을 세로배워 수록했다느니 보다는 우리 수박희 행하는 방법을 수록했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 소림사 권법의 기원설(起源說)과 우리의 고구려시대 고분 벽화(壁畵)에 나타난 연대(年代)를 비교(比較) 고찰(考察)하여 본다면, 우리 태권도가 결코 중국 소림사 권법의 아류(亞流)가 아님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중국 소림사 권법은 달마대사(達磨大師)의 창시(創始)라고 되어 있다.

달마대사는 중국 하남성(河南省) 등봉원(登封縣) 북서쪽에 있는 소실산(少室山)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소림사에 9년간 유식(留錫)하면서 역근(易筋: 근육 단련 운동을 행하는 방법)과 세수(洗髓: 정신 수양 방법)로서 이른바 십팔나한수(十八羅漢手)라는 건강술(健康術)을 승려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소림사 권법의 "시초"이다. [吳文忠: 體育史 P. 295, 304, 307]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들어온 해는 양(梁)나라 무제(武帝) 보통원년(普通元年)이니 A. C. 520이며, 북위(北魏) 효명제(孝明帝) 정광(正光) 1년이요, 우리나라로서는 고구려 안장왕(安藏王) 2년, 신라 법흥왕(法興王) 7년, 백제(百濟) 무왕(武王) 20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술한 고구려 환도성 벽화가, 그러했다고 추정되는 서기 A. C. 209~427 기간보다도 훨씬 늦은데, 환도성에 이도한 해인 A. C.

209보다는 311년후가 되고, 평양으로 국도를 옮기기 전년, 즉 환도성 국도 최후의 해인 A. C. 427보다도 93년후에 중국에서는 달마대사에 의해 소림사 권법이 비토스 창시(創始)된 것이다. [關口眞大: 達磨の研究 P. 32~41, P. 44~51, P. 136~205]

그리고 <통구>(通溝)의 저자(著者)들이 추정 한 무용종 벽화 연대인 "고구려 하대의 중기" 서기 6세기 전반기)로 보면 거의 동시대에 속하고, <고구려 고분 벽화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金元龍씨 의견에 의하면 서기 6세기 초(A. C. 520以前)이므로, 이 연대도 중국으로 달마대사가 오기 전이 되고,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간 유식하면서 권법을 창시한 때보다 앞서서 고구려에서는 태권도 벽화를 고분에 그려 놓은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소림사 권법이 중국에서 세상에 널리 퍼져 발달하기는 훨씬 후대(後代)인 송(宋: A. C. 960~1279)과 명(明: A. C. 1389~1644)시대에 와서 장일전(張一全: 일명 張三峰)이 내가(內家)권법을 창시해서 후세에 전하면서 소림사 권법은 외가(外家)권법이라 하고, 각원상인(覺遠上人)은 소림사 18수(十八手)에 변화를 부가해서 170여수를 만들어 발전시키고, 백옥봉(白玉峯)이 오권(五拳)을 창시하는 등, 후세(後世)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장일전(삼봉)은 송(宋)나라 시대 사람이라고도 하고, 혹은 명(明)나라 시대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는 금(金)나라 시대 사람이라는 설도 있는데, 대개 A. C. 1200~1300 사이의 사람인 모양이다. 각원상인은 금나라와 원나라 사이의 사람이라 하므로 대개 A. C. 1200 중기(中期) 사람이다. [吳文忠: 體育史 P. 307, 笹島恒輔: 中國體育史 P. 73~76]

이 무렵은 우리의 고려(高麗) 고종(高宗) 연대(年代)에 해당되는데, 이때에는 우리 태권도 경기가 널리 행하여진 기록이 고려사(高麗史)에 자주 나타나므로 구대여 중국 소림사 권법과 연대를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이로써 보아,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무술로서 발생하여 발달해 왔고, 중국 소림사 권법에서 전래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역사적 고증(考證)이 뚜렷한 것이다. (다음호 계속)

History of Korean Tae Kwon Do

by Cho, Wan Mook

Tae Kwon Do is a Korean national sport.

Early in the history ancestors of the Korean people moved from the heart of Asian continent to the Northeast Asia. Before and after the neolithic age several tribal states were founded around Mt. Paiktu, occupying the territory what is now Manchuria and Korean Peninsula.

Ever since, this people have flourished their unique culture for 5,000 years of their history. In parallel with the brilliant culture they have also created and developed their own sports. Tae Kwon Do is a sport the ancestors of the Korean people initiated before any other people of the world.

Once the Korean people had three countries: Silla, Koguryo, and Paikjae. Koguryo, which was founded in 37 BC in the south-eastern area of Manchuria and nor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was later destroyed by Silla in 668 AD.

Mural paintings found in ruins of tombs built during Koguryo shows clear evidence that Tae Kwon Do was in practice as early as in Koguryo. Numerous ruins of Koguryo tombs are found in Whando-sung, old capital of Koguryo which was located in the area what is now Tung-gu, Jeup-an county of Manchuria.

On the ceiling and walls of Mooyong-Chong

(dance tomb), one of the above tombs, are mural paintings depicting the customs of Koguryo dynasty. One scene of the paintings shows Tae Kwon Do practice by two men facing each other.

A historical research revealed these mural pictures were painted in the earlier part of sixteenth century; perhaps 501-521 AD. From this it may be assumed that Tae Kwon Do was in practice before the pictures were painted.

By comparing this fact with the time when Saint Dalma, a great Buddhist priest who allegedly introduced the art of self-defence (Kwonbup) into China, we can see that the people of Koguryo practiced Tae Kwon Do before Chinese did.

According to a Chinese document, the Chinese art of self-defence has its origin a sort of physical exercise Saint Dalma taught monks of Solim Temple in Deung-Bong County, Honan Province, China.

Saint Dalma who was an Indian by origin came to China in 520 AD, and thereafter spent 9 years at Solim Temple. It is believed that Chinese art of self-defence was initiated there during this period.

Saint Dalma, a great Buddhist priest, is the father of Chinese art of self-defence. He introduced the art into China in 520 AD.

Howevre, we have found a mural painting of Tae Kwon Do game at the ancient tomb built in Kokooryo dynasty, much earlier than 520 AD.

According to this historical fact, it can be said that Tae Kwon Do has been one of Korean own sports.

In 1638 AD, Chin Won-Bin, a Chinese of Ming dynasty was naturalized as a Japanese and imparted the Chinese art of self-defence to Japanese people. That was the beginning of Japanese Karate.

In earlier days, therefore, Japanese people had used the word "Karate" in the sense of the Chinese hand-art of self-defence created in Tang dynasty. Afterwords, the Karate has become to mean the art of self-defence without any weapon.

Chinese art of self-defence, Japanese Kaate, and Korean Tae Kwon Do all resemble each other. Accordingly, it might be possible to believe that Korean Tae Kwon Do is originated from Chinese art of self-defence or modelled on Japanese Karate.

In Silla dynasty, Wharangdo, knight-errants trained their bodies and spirits by Tae Kwon Do. In Koryo dynasty, Tae Kwon Do was so popular in the military society. In Chosun dynasty, Tae Kwon Do was a national sport sothat a large portion of the nation could play Tae Kwon Do game.

Furthermore, Jungjo, a great King of Chosun dynasty, published Mooyedobotongji, a pictorial textbook on martial arts, in which Tae Kwon Do was selected as one of main martial arts.

In conclusion, Tae Kwon Do is not only one of Korean own sports, but also a Korean national sport which had been initiated at least 500 years earlier than Chinese art of self-defence (Kwonbup).

BIBLIOGRAPHY

Auh, Moon-Choong: *A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P. 295, P. 304, and P. 307.

Chindanhakhoe (A Historical Society): *Korean History; Old Part*.

Choi, Nam-Sun: *Kosatong* (An Outline of Korean History).

Ema, Tsutomu: *A History of Japanese Customs*, PP. 324-328.

Jungjo, the Great: *Mooyedobotongji* (A Pictorial Textbook on Martial Arts), PP. 481-512.

Kim, Deuk-Whang: "A Recollection of Whando," *Paeksan Review*, 1st Issue, P. 191 and P. 201.

Kim, Won-Yong: "A Study on the Mural Paintings of the Ancient Tomb Built in Kokooryo Dynasty," *Chindan Review*, 21st Issue, PP. 153-185.

Lee, Hong-Jik: "A Survey of the Ruins of Kokooryo Dynasty," *Paeksan Review*, 1st Issue, PP. 153-185.

Saito, Dadashi: *A Study of the Ancient Culture of Korea*, PP. 76-85.

Sekiguchi, Shindai: *A Study on Dalma, a Great Buddhist Priest*. PP. 32-41 and PP. 136-205.

대한 태권도 협회

연 혁
沿革

태권도는 우리민족 고유의 무예로서 1천6백여 년전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행해온 국기(國技)이다.

이 국기를 근대(近代)스포츠화한 태권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기는 8·15해방과 더불어 일본 유학생 또는 중국에서 돌아온 몇사람의 지도자로서 보급의 시초가 되었다. 초기에는 서울에 청도관(靑濤館), 조선연무관(朝鮮研武館), 그후 기독교청년회관(基督教靑年會館)과 무덕관(武德館)이 생기고, 개성(開城)에서는 송무관(松武館)이 활발히 움직이었다.

제1차 통합회합

1946년 7월경 전상섭(田祥燮)씨, 이원국(李元國)씨, 윤병인(尹炳仁)씨와 개성에 노병직(盧秉直)씨가 주동이 되어 협회를 구성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졌으나 2, 3차의 회합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임시수도 부산에 대한공수도협회 창설하다

근 5, 6년간 각자 후배만을 육성해오다 뜻아니한 6·25동란으로 민족적 수난을 당하던중 우리 태권도계에도 재화는 면할 길 없었다.

이 나라 태권도의 선구자인 이 보배로운 사람들 중에는 남북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몇몇 지도자는 남하하여 전쟁 중에도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임시수도 부산(釜山)에서 노병직씨, 윤쾌병(尹快炳)씨, 황기(黃琦)씨, 이종우(李鍾佑)씨, 현종명(玄鍾明)씨, 조영주(曹寧柱)씨, 김인화(金仁和)씨가 모여 보람찬 회당을 짓고 통합의 간판을 대한공수도협회(大韓空手道協會)라고 붙이었다.

그후 1개월도 안되어 무덕관 황기씨가 탈퇴하고, 다시 1년이 넘어 당시 청도관장 손덕성(孫德成)씨도 탈퇴하게 되었다.

서울 환도후 황기씨는 당수도협회를 조직하여 대한체육회에 가입을 서두르고 있었다.

대한공수도협회에서는 이를 저지키 위하여 윤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패병, 노병직 양씨가 동분서주하며 임원을 보강하는 한편,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끝내는 당수도협회의 가입 저지에 성공하였다. 그 당시 공협(空協)회장에 이중재(李重宰)씨, 부회장에 민판식(閔寬植)씨였다.

태권도협회가 생기다

한편 청도관을 주동으로 태권도협회를 조직하여 최홍희(崔泓熙)육군소장이 회장이 되었다. 태권도회 최장군은 뜻한바 있어 각 유파(流派) 통합을 부르짖고 문교부와 체육회의 앞선으로 통합회의에 성공하였다.

최홍희씨는 먼저 태권도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태권도회를 조직한 것이다.

회장에 최홍희, 부회장에 윤패병, 노병직, 이사장에 황기씨였다. 그러나 한두사람의 개인 사정으로 황기씨가 먼저 탈퇴를 하자 이것 역시 사납구각(砂上樓閣)격이 되고 말았다.

수박도회(手搏道會)가 전격적인 사단법인 등록을 하다

1960년 4월 말경, 4·19혁명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틈타, 황기씨는 당시 정계의 권력자인 모씨를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문교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였다. 이에 각 도장에서는 문교부에 엄중 항의를 하였다.

타관(他館)에서도 법인체 등록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문교부 측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결사(結社)의 자유를 막을 수 없으니 정식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또 하나의 법인체가 생기면 같은 종류의 단체가 둘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모든 준비를 하던 중 5·16혁명이 일어났다.

유사단체 통합 진척

국가재건 최고회의 포고령 제6호로서 사회단체 재등록에 관한 포고로서 문교부는 유사단체(類似團體)통합을 서둘러 1961년 7월 12일자 공문으로 「대한수박도회」 「대한태권도회」 「공수도창무관」 「공수도총무관」 「강덕원 무도회」 「한

무관 중앙 공수도장」대표들을 소집하여 통합회의를 수차에 걸쳐 열었으나 결실을 이루지 못하던 중 당시 읍서버로 참석하였던 이종우씨의 의로써 자율적인 기한부 통합을 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보고기로 하였다.

그 다음날부터 한국체육관에서 수차의 회동 끝에 성숙 차나 명칭문제로 난관에 부딪혔으나 엄운규, 이남석, 이종우씨가 반대측인 최홍희씨와 타협하여 「태수도」로 해결을 보고 완전무결한 조직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대한 태수도 협회

1961년 9월 14일 태권도 통합 창립위원회 조직 창립위원으로 7인위원 구성.

이종우 엄운규 윤패병 노병직 이남석 황기 남태희

1961년 9월 19일 이사회를 조직하고 임원진출 구성, 명칭을 대한태수도협회로 제정.

1961년 9월 19일 회장 공석, 부회장 엄운규 이종우, 상임이사 남태희 이용우 이영섭 오재준 이병로, 이사 현종명 이교훈 박철희 고재천 송태학 김순배, 감사 차수봉 이희진, 사무장 김완수.

1962년 6월 25일 대한체육회에서 본회 가입 승인.

1965년 9월 5일 본회 이사회에서 무덕관 황기씨, 지도관 윤패병씨의 본회에 제출한 탈퇴서 수리.

1962년 10월 5일 본회 사무실을 대한체육회 제302호실로 이전.

1962년 10월 24일 처음으로 제4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함.

1962년 12월 15일 회장 채명신, 부회장 엄운규, 전무이사 김순배, 총무이사 이병로, 기획이사 박철희, 재무이사 이용우, 이사 이종우 현종명 이교훈 우종립 백준기 김선규 이영섭 이재영, 감사 이희진 김봉식, 사무장 김완수.

1962년 12월 28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가입 승인과 동시 임원 인준.

1963년 2월 23일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가입 승인.

1963년 5월 1일 협회 사무실 대한체육회 323호로 이전.

1963년 6월 24일 회장 채명진, 부회장 현종명, 사무이사 박철희 총무이사 이병로 기획이사 김근 경기이사 우종립, 이사 이용우 최기용 정진 이교운 김순배 백준기 이영섭 이병진, 감사 봉식 이령홍, 사무장 김완수.

1963년 8월 31일 대한태수도협회 규약 개정.

1963년 10월 4일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경기 6회 실시.

1964년 4월 3일 대한태수도협회 규약 개정.

1964년 4월 3일 회장 박종배, 부회장 박문 양승, 전무이사 엄운규 총무이사 이병로 기획이사

김선구 경기이사 김순배 섭의이사 이용우 재이사 정진용 시설이사 이병진, 이사 현종명 남희 이계훈, 감사 홍정표 최동렬, 사무장 김완수.

1964년 6월 4일 협회 사무실 대한체육회 제320호로 이전.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경기 7회 실시.

1965년 1월 15일 회장 최홍희, 부회장 이종우, 사무이사 엄운규 총무이사 이병로 기획이사 김선구 경기이사 김순배 재무이사 최동희 시설이사 정표, 이사 박철희 이교운 정진용 남태희 이계광근식 백철, 감사 현종명 김두환, 사무장 완수.

대한태권도협회

1965년 8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개정.
1965년 10월 6일 제4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경기대회 5회 실시.

1966년 1월 30일 회장 노병직, 부회장 (상임) 엄운규 백영기 김영택, 전무이사 이남석, 총무이사 이병로 경기이사 김순배 기획이사 홍정표 재무이사 이강익, 이사 이용우 이계훈 이교운 오세준 봉근식 홍중수 백준기 이해만 백철, 감사 현종명 김현규, 사무장 김완수.

1966년 10월 28일 제1회 대통령기쟁탈 태권도단체전 개최.

1966년 10월 10일 제4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경기대회 7회 실시.

1967년 1월 30일 회장서리 김용재, 부회장 (상임) 엄운규 이강익, 전무이사 이남석 총무이사 이병로 경기이사 김순배 기획이사 정진용 재무이사 이용우 섭의이사 홍중수, 이사 이교운 오세준 현종명 박근식 고재천 이영섭 송태학, 감사 김봉식 김해동, 사무장 김완수.

1967년 10월 5일 제48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경기 6회 실시.

1967년 10월 5일 경기규정 재검토 개정.

1967년 11월 30일 태권도협회 제정형(制定型) 심의공로.

1968년 회장 김용재, 부회장 엄운규 이강익, 전무이사 이남석 총무이사 이병로 경기이사 김순배 기획이사 정진용 재무이사 오세준 섭의이사 홍중수 시설이사 홍정표, 이사 현종명 이교운 이용우 노영대, 감사 김해동 박해만 사무장 김완수.

1968년 6월 16일 제1회 주한외국인 태권도대인선수권대회 개최.

1968년 9월 13일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경기 11회 실시.

1969년 1월 12일 회장 김용재, 부회장 엄운규 이남석, 전무이사 홍중수 총무이사 이병로 경기이사 김순배 기획이사 정진용 시설이사 홍정표, 이사 이교운 정창영 박해만 이도훈 장태익, 감사 김해동 이계광.

1969년 10월 22일 대한태권도협회 규약 개정 승인.

1969년 10월 28일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경기 9회 실시.

1970년 10월 6일 제51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경기 9회 실시.

1971년 1월 17일 회장 김용재, 부회장 엄운규 이남석 장재식, 전무이사 홍중수 총무이사 이병로 기획이사 정진용 경기이사 김순배 시설이사 홍정표, 이사 이교운 정창영 장태익 박해만 이용우 김선구 김인석 현우영 최동렬 이도훈, 감사 이계광 김철희, 사무장 김완수.

1971년도 협회 임원



회장 金雲龍



부회장 嚴雲奎



부회장 李南石



부회장 張在國



전무이사 洪鍾秀



총무이사 李炳路



기획이사 鄭辰龍



경기이사 金順培



시설이사 洪正



이사 李敬允



이사 丁昌永



이사 張台弼



이사 朴海滿



이사 李龍雨



이사 金先九



이사 金寅錫



이사 玄友泳



이사 崔東烈



이사 李道淵



감사 李啓光



감사 金哲會

〈지 방 이 사〉

朴賢鍾(부산)

池相燮(경북)

田逸燮(전북)

田 鐵(전남)

趙誠一(강원)

〈위 축 이 사〉

崔東熹 尹在珪

權京旭 鄭允一

金海東 金容德

金容瑞 金起聲

金在基 金根培

鄭鍾奎 金容瑞

李于模 閔淳

李應三 禹在

金充一 高善

(무순)

태권도의 내일을 펼치다

—김용운 회장께 현황과 전망을 듣는다—

잡지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크다 ◆

타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하
고, 바빠도 내 일이니 만나야죠.

회장님께서 역점을 두신 잡지에 관한 말
을 하여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협회가 발
간지도 어언 십년입니다. 회장님께서 취임하
전까진 엄두도 못낸 우리 잡지가 오는 4월
을 기해 전국 130만 회원은 물론, 해외에서
하고 있는 사범들에게까지도 전달된다고 참
기쁜 일입니다. 우선 회장님의 소감을 한
부탁드립니다.

참 열마디의 말보다 한가지의 실천이 중요
하다. 전임회장님들이나 임원 여러분께서 기
발간에 대해 많은 노력을 쏟아왔으나 여러
여건으로 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내
일잡지미로 실천에 옮긴 것 뿐입니다.

제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
30만 태권도인에게 반영된 것이며, 지나온
취가 날날이 기록될 겁니다.

소르는 잡지를 통해 기술적인 문제도 하나
이론으로 통일할 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전
하나의 완전한 태권도 교재가 되는 것입니

회가 집행하는 사업이나 회원들의 활동상황,
사람들과 외국 태권도현황 등이 보도될때 우
서로들 위한 이해 협조와, 단결과 발전의
이 되어 줄것입니다.

특히 잡지에 부탁하고 싶은것은, 모든 생물체
가 그렇듯 태권도 역시 커나가기 위해선 많은 영
양분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뼈가되고 살이될 영
양소의 공급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황무
지와 같은 상태의 태권도의 개간을 위해 잡지는
불도저의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태권연구의 저
변확대말입니다.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과학적
인 분석을 통한 이론의 체계화를 해야겠는데, 이
를 잡지가 담당해줘야 되겠습니다.

◆ 알찬 우리의 집을 ◆

흔 잡지에 대한 말씀은 대충 이로서 줄이고
다음은 센터 건립에 관한 말씀을 하여주십시오.

회장 센터는 우리의 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 의(衣), 식(食), 주(住)가 없으면 살 수가 없
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깁니다. 우리에게도
주가 필요합니다.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에게
센터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기술 다음으로
센터가 필요한것은 모두가 인정할것입니다. 그
래서 2억원의 기금으로 센터 건립을 계획한것
입니다. 그런데 센터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
엇보다도 한국적이며 한국의 열이 깃들어야 합니
다. 그리고 기능적이어야합니다. 이문제에 대해
서 각계각층의 원위자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가
져야겠고, 우선 그에 앞서 우리들의 의견을 중
합하여 2개의 시안(試案)을 만들어 보았으나 탐
탁치는 못합니다.

내외부 구조와 규모등에 대해선 별도로 다루었
다니 생략키로하고.....



흠 그러면 센터건립후에 올 잇점이랄까, 다시 말씀하면 필요성이라도 좋습니다만.

회장 참 좋은 질문입니다. 나도 그 얘길 하려던 참입니다.

첫째, 기술적인 것을 통일할 수 있고,
둘째, 국내나 해외파견 사범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셋째, 전국의 우수지도자를 한자리에 모아 좋은 기술을 연구할 수 있으며

네째, 태권대학의 발판으로 삼으며,
다섯째로는, 명실 공히 종주국으로서의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5가지 외에도 많은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갈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국기(國技)를 찾을 것입니다. 이번 창간호에 주신 대통령각하의 휘호의 글귀와 같이 지금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국기의 질로 다름질쳐야 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더 침언하고 싶은 것은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까지의 파벌의식을 불식(拂拭)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여리고 약하지만, 우리는 크고 강한 것'입니다. 130만이 함께 들들뭉쳐 나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첫째도 내실(內實), 둘째도 내실인 것입니다.

◆ 움직이는 철학이 아쉽다 ◆

흠 청소년 선도와도 직결되고, 특히 태권도 수련자들에 대한 자세(姿勢) 문제에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회장 태권도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것이 모여 하나의 집단으로 발전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 속에서 하나의 핵이 분산되어 분자의 활동을 할때, 전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체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이 개인이라고 보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쉬운 예로 '미꾸라지 한 논두렁 물을 흐려 놓는다'는 우리 속담처의 무분별한 행동이 무시못할 화근(禍根)의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화근이 발전·회절(回旋)을 혼란케 만든다면 그 책임은 부·학교, 사회 지도층에 있기 전에 태권도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범, 즉 지도자 자신이 우선 올바른 것을 가져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태권도'이란 사범의 자격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라야 남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몇 지도자를 만나 봤지만 전 애석하게도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너무 없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비전이 없.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훌륭한 태권 나오겠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는 조속히 시정돼야 겠을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 태권도의 움직이는 철학이 요청됩니다. 이 바로 태권도의 얼을 창조하자는 뜻입니다. 평소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여러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예의에 바 두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의규범을 만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철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곧 한국 로 승화시켜야겠다는 것입니다.

◆ 태권도 장학제도 ◆

장관호에 태권도 장학제도에 관한 기사가 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 경기 성적이 우수한 선수를 선발해서 이 장때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는 취지 아래 온 사업층의 하나로 이를 단행했습니다.

권도 기술은 훌륭하지만 생활이 가난하다면 도선수로서만 끝나는게 지금까지의 상례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우한 선수들에 육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을 소직 태권도 선수로서 끝나

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내 재임중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들에게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 자그마한 장학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기사가 나간단니까 생략하기로 하지요.

◆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 ◆

흥 다음은 국제태권도연맹이나 수박도회에 관해 한 말씀 하여주십시오.

회장 국제연맹이니, 아시아연맹이니 하는 따위는 나라마다 있는 형편이니 뭐 별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만, 지난 3월 19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대회에 한국이 불참했다고 신문에 떠들썩했는데, 한가지 예로서 미국의 「뉴욕」시에서 1년에도 수십번의 그러한 대회가 열립니다. 그 대회의 명칭은 모두가 「월드 챔피언」 또는 「인터내셔널 챔피언」 「판아메리칸」 등으로 잔판을 걸고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대회에 모두 참가해야 하였습니까? 이러한 대회는 누구나 주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공인이 필요한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실력을 양성해서 국제적인 '패권(霸權)'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종주국의 위신도 세우는 길이 되고.....

그리고 수박도회는 문교부에 사단법인체로 등록된 단체라고 듣고 있는데, 이 단체도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나'가 문제입니다. 국제연맹이나 수박도회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나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뒤따라야만 한국의 태권도가 명실공히 국기로서 성장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 말씀 끝이 없으나 여기서 줄이기로 합니다.

흥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값진 사려와, 철학에 바탕을 두신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 130만 모든 태권인에게 깊은 감명과 용기를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태권도 센터 건립

—소망 결실의 해—

홍 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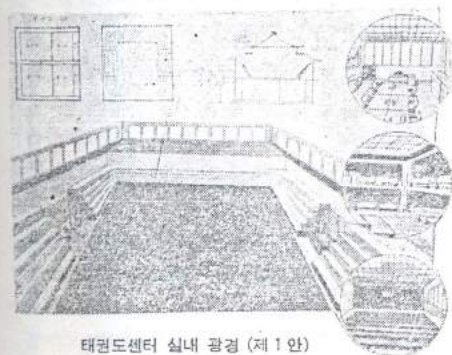
(센터건립추진위원회 간사
협회 전무이사)

■ 맘모스 태권도 센터가 세워진다

130만 태권인의 열화같은 정성이 무르익어 바야흐로 서울중심 남산 기슭에 중앙도장이 세워질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무려 3천명이 넘는 대지 위에 열건평 1천여평의 방대한 계획으로 7월초 착공될 예정이다. 1969년부터 본협회는 130만 회원들의 수련의 전당으로 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에 센터 추진의 촉진제로 첫 스타트는 회원들의 성의로서 자체자금 모금의 필요성을 느껴 십사대회에 센터기금을 첨가 모금하여, 이제는 상당한 액수에 도달하였다. 더욱 강조할 것은 1970년도 예산국회에서 국고보조금 2,850만원이 결정되었는데, 이에선 전임회장 김용채씨의 공이 컸음을 130만 전회원과 함께 감사하는 바이다.

■ 센터가 지니는 외모의 상징



태권도센터 실내 광경 (제 1안)



태권도센터 투시도 (제 1안)

한국적이며 한국의 얼을 상징할 수 있어야 했기에 본회는 사학가를 비롯하여 각계 권위자들의 자문을 받아 지붕은 한식으로 하고 외모 현대적이면서도 웅장함과 경건함이 담뿍 풍기도록 하였다. 지붕의 기와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만이 자랑할 수 있는 청기와를 입히도록 하였다. 내부는 3~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기장을 비롯하여 합숙소, 강의실, 탈의실, 목욕수련장, 식당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벽의 식은 천연대리석으로 고대 우리나라 태권인을 뜻하여 두예도보통지에 기록된 동작을 조각기로 되어있다. 본당 앞쪽에는 1천여평을 넘 야외수련장과, 본당 뒤편에는 우리의 철학과념을 하나의 종교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심볼 존워 (Symbol zone tower: : 상징탑)를 세워 130만 태권인 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유학온 외국인에게까지도 우리의 얼을 심어주는 역할을 다하게 하는 상징물이 된다.

앞으로 센터가 건립되면 해외유학생을 받아이는 것은 물론, 중주국으로서 손색없는 국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 지도자 양성과 이리 태권대학까지도 구상 계획중이다. 따라서 술의 통일성과 기술개발의 필요한 연구기관을 치하여 명실공히 태권 중주국의 면모를 갖춘이상의 센터 건립에 대한 개요(概要)가 앞으로 리 태권인은 물론 은 국민에게 고루 알겨줄 기은 국기(國技)를 바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는 보배로운 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태권도 센터 제 2 안 정면도는 표지 원색화)

태권도 소고

跆拳道 小考

洪 正 杓

(협회시설이사)



보다 차원 높은 태권도 개발의
평이를 들자. 그건 벽들을 깨뜨리
는 손도 아니요, 허공 높이 차올리
는 발도 아닌, 올바른 정신과 건강
한 육체와의 조화인 것이다.

태권도가 스포츠로서 인정을 받아 크게 장려
하고 더우기 해외에 한국의 스포츠를 소개하는
데 세리트의 중임까지 맡고 있음은 주지(周知)
의 사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태권도의 온상(溫床)이라 할
이만큼 국제화하고 있는 이 명예로운 현실 앞에
우리는 들떠 뽐내는 주착을 하기 앞서 조용한 반
성과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겠다.

그동안 태권도가 안정된 풍토를 찾으려고 허
우적이기를 체육회에 가입된 이후 9개성상이 되
었다. 인잔도 8세가 되면 소꿉장난하던 손을 털
고 책가방을 메고 학문의 길을 탐는다. 태권도
도 예외는 아니라 통일된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
추고 있으나 책가방을 메고 입문(入門)하는 경
지까지 이르려서는 아직 여정이 남았다.

항시 소꿉놀이만 할 게 아니라 지능의 개발을
위해 입문의 대열에 서야 할 게 아닌가? 철없
이 나이만 먹을게 아니라.

태권도의 개발을 위한 정상(頂上)을 향해 치
달는 길을 모르는 것 같다. 바야흐로 안락으로
불길처럼 일고 있는 봄을 타 괴상한 분장을 하
고 종횡무진으로 비상(飛翔)하는 축들이 있음은
지극히 유감된 일이다. 그 보기로는 이 무술이
기업화(企業化)되고 있음이요 정통(正統)을 의
면한 사이비(似而非) 무술형태의 탄생이며 사제
(師弟)와 선후배와의 배신과 반목등을 들 수 있
다. 들은 바에 의하면 외국 파견이라는 미끼로 종
정이 오가는가 하면 이렇게 유혹을 해서 인원등
원에 급급하고 있으며 또 외국에 가서 스승의 이
름들을 내세워 잔뜩 PR해 한몫 잡으면 다른곳
으로 바람처럼 사라지는 풍길동파들로 해서 그
승고 무후한 무술의 이름으로 이처럼 고약한 노
략질을 한다니 될 말인가, 고도화된 기업화가 아
니었던들 그런 고약한 무리는 아예 태권도장에
발이나 붙일 것이며 외국까지 파견되었겠는가?
무조건 가르치고는 책임을 모르는 이 남산(濫産)
이 큰 원인이다.

태권도 무술이란 정신수양의 바탕 위에 육체
의 씨를 뿌려 힘의 열매——신뢰한 기능——를
얻는 것이다.

꾸준히 쌓은 수련으로 인내력을 기르고 그 인
내는 자제력과 올바른 사고력을 낳게 하고, 그것

정신을 모아보고 힘을 모아보고



정 범 모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교수)

매일 매일의 생활은 그저 흘러가기 쉽다. 어디에선가 정신을 한곳에 집중해보고, 온갖 힘을 한곳에 집중해 보는 일이 드물다. 그러나 인생의 충만감(充滿感)은 도리어 어려움 없이 물처럼 흐르는 생활에서 보다는 도전이 있어 마음과 몸을 힘껏 한곳에 모아보는 데에서 느껴진다.

비단 태권도가 아니라도 좋다. 낚시에서 강심(江心)에 마음을 모으고, 다이빙에서 다이브에

마음을 모으는 것도 좋다. 역도(力道)에서 바아 올리기엔 온 마음과 힘을 모아보는 것도 좋다. 태권도에는 이렇게 정신을 모아보고 힘을 모으는 충만감이 있다. 몸을 툴튼히 한다면 지음을 단련한다든지 하는 실용효과(實用效果) 전에 심신집중(心身集中)이 수반하는 생(生)충만감을 귀하게 생각하고 싶다. 이런 충만감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은 또 정의감을 길러 준다. 그런데 이런 무술의 진의를 왜곡(歪曲)하고 있다. 형식적인 유행의 것만을 중시하는 바로 그것이다.

벽돌을 몇 개 깨느니, 기와를 몇 개 깨느니 또는 공중으로 몇 걸을 차느니 등의 일종의 시위만능화와 몇 급, 몇 단 따위의 허영적인 권위의식(權威意識) 내지 영웅심 등 이같은 것만이 태권도의 전체라고 생각하니 이는 벌써 퇴폐된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이 무술은 어디까지나 유형(有形)의 것보다 무형(無形)의 정신을 단련하는 운동이며 계급적이며 영웅적인 자기표현의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등이며 겸손이며 무아적(無我的)인 것이다.

외국에서도 전과 같이 깨고 부수는 따위의 위력을 소개하는 것은 한낱 웃음거리로만 여긴다. 우리는 위력이 지배하던 시대는 갔음을 인식하고 보다 더 이 무술의 오묘(奧妙)한 뜻을 찾아 체계화 하고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創造)를 위해, 즉 보다 높은 차원의 무형문화재로서의 제시를 해 줘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떠벌이식 간판태권도를 지양(止揚)하고 알찬 성장 조용한 발전을 위해 성실히 수련

하고 부단히 연구 연마하는 태권도의 기수가 어야 한다.

자기 계열의 세력부식으로 무슨 단체 무슨니 하는 현기증 나는 그런 것 좀 삼가하고 선자들이 남기신 그 성의에 오점(汚點)을 남기지 않게 힘쓰자. 그것이 후진된 우리의 도리가 아겠는가? 후진으로서 도리를 망각한대서야 말 되겠는가? 특히 요즈음 한심한 일은 무도인으로서 엄격해야 할 예의범절(禮儀範節)이 말입니다. 사제간이 그렇고 선후배간이 그렇다.런 전 우리가 선대의 유지를 저버리고 제나를로의 이탈에서 오는 인과(因果)이라던 그릇된 단일까? 무인을 '의리의 사람'이라 한다.이 리란 예의에서 비롯되는데 예의가 짓밟혀졌니 이제 무인의 이미지는 호리어진 것이다.

선대가 쌓은 고귀한 탑을 동문인 우리 손으허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자(自重)하고 자숙(自肅)하고 자성(自省)해서 예바른 의리의 무인으로 무릇 사회에 귀감(龜鑑)되어야 하며 믿음과 협동의 민주낙원을 이룩는데 앞장서야 된다. 우리의 자그마한 미행(行)도 곧 사회에 직결됨을 명심하고 올바른 권정신을 계승하는데 주저없이 바란다.

태권도 跆拳道는 어떻게 開發되어야 하나?



柳 根 碩

〈한양대학교 체육대학장·대한체육회 이사〉

問社會에 體育이 發現된 것은 어느 나라를 莫고 自然 發生的이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은 人間 自體가 지닌 情緒의 發露이고 人間의 肉體의 兩面의 緊張 緩和로서 不可分の이다 解釋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先哲들은 같은 自然發生的의 情緒 發露의 흐름을 흐름 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適正 轉向시켜, (淨用)으로 돌려 價値를 追求하게 하였으니 이 곧 體育이라는 이름의 敎育으로 發展된 셈이다. 이 敎育은 다시, 哲學을 바탕으로한 人間으로서 한 가지가 변었고, 다른 한 가지는 增強의 方法으로 發展되었으니, 前者는 修養 後者는 生産, 여러 가지 뜻의 養力 手段이 各같은 달리하면서도 恒常 안팎의 關係를 이루어 결여었다.

이러한 樣相은 勿論 時代와 社會와 個人의 要請에 依하기도 하였거니와, 政治, 軍事의 影響을 입어 修道와 養力에 濃淡이 決定되기도 하였지만 勿論, 같은 種類의 體育活動이라 할지라도, 人種이 지닌 先天性과 遺傳性에 힘입은 氣質과 性格에다, 環境이란 力動的 壓力이 配合하여 活動型的의 造型的의 구질과 時代의 指向性이 國의 特質을 보여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의 文化事象은 現代의 靑스·미디어와 交通手段의 發展으로 頻繁히 交流되는 바에 相互中和되어, 現代의 型態로 再造型되어 國의 特色을 잃은 世界的 스포츠로 復活되

여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스포츠의 祖上이 어느 나라라는 자랑 보다는 오히려, 그 스포츠가 얼마나 普及되어 있는나를 우러러보고 또한 얼마만큼 強하냐를 자랑삼는다.

이제 우리들은 韓國의 跆拳道를 發展시켜 數百의 指導者를 海外에 派遣했고 各國의 同好者들이 續續 우리나라를 訪問하여, 跆拳道 輸入에 熱中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狀은 우리 文化의 자랑이요 國家의 慶事가 아닌 수 없으며, 實은 元祖라는 韓國의 跆拳道, 〈現代의 스포츠〉로서의 面目과 科學的 理論의 밑받침을 確乎히 가추었나 疑心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體級問題이다 大體로 西歐에서 發展된 格技는 體級을 나누어, 그 安全性和 公平을 期하고 있고, 最近에 柔道가 西歐로 옮겨지자 곧 體級을 認定했다. 이제 우리의 跆拳道가 西歐로 옮겨지고 있는 이대에 韓國이 이 體級을 認定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不必要의 合理的 理由를 들어 元祖다운 解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跆拳道가 지닌 價値性 問題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포츠가 지닌 共通된 價値性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以前에 跆拳道로서 지닌 特性으로서, 納得이 가는 價値를 闡明하여야 한다. 그러기에는

① 基礎體力인 筋力·瞬發力·持久力·柔軟性·敏捷性등에의 影響力과 加減야할 專門體力의

로서의 要素를 究明하여, 科學的 基礎위에서 나
은 實質性的 明示가 必要하며,

② 技術의 合理性과 더불어 技術의 美·用·
健의 科學이 또한 要求된다.

③ 다음으로 身體部位의 物理的 立場에서 본
메카니즘과 生體機序의 有機性에 따른 身體訓練
의 合法性의 研究라 하겠다.

지금의 身體訓練은 傳統과 因習에서 오는 固
執과, 派에 屬한 我執으로 曰可曰否하나, 그 贊
否에 對한 科學的 理論이 없다. 그러한 固執은
古典派인 特殊人들이 傳統을 지키겠다면 納得이
가나, 普及과 傳播을 위해서는 癘이 되기 쉽다
는 點을 記憶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것을 世界에
傳播하자는 野望을 갖고서, 神秘를 裝飾으로 하
고, 擊破를 唯一의 매력으로 하는 따위는 好奇心
로서 넘겨다 볼망정,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세째: 安全性이 問題가 된다. 現代의 스포츠
는 競技化되거나, 테크리에이션의 型態로 호
르거나 간에 安全性의 確證이 없이는 發展하기
힘든다. 그러기에는

① 畸型的 身體發達이나, 破型的 浸害가 없음
이 證明되어야 한다. 勿論 여기에는 正道의 方
法이 提示되어야 하고, 不當한 方法의 注意가 參
與되어야 한다.

② 身體訓練에 必要한 用具나, 裝備의 科學化
는 勿論이더니와, 衣服이나 手足에 着具 또한 研
究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體軀에 따르는 寸數와
人間工學의 知識이 動員되어, 安全性에 萬全을
期하고 萬인이 安心할 수 있는 것으로 發展시켜
야 한다.

③ 다음으로 試合의 形式과 採點의 科學化도
安全性에 直結되는 問題이다. 그 좋은 例가 泰國
의 킥 복싱이다. 긴 傳統과 興味로운 競技이긴
하지만 安全性이 缺如되고, 試合에 安定性이 없
는 까닭에 學校나, 一般이 즐기지 않고, 무로의
싱싱풀이로 命脈이 維持되고 있다는 點이다.

특히 採點의 正確을 위한 合理的 方法의 研究
는 競技運營의 問題뿐이 아닌 安全性의 問題에
더욱 考慮되어야 한다.

④ 이러한 安全性은 또한 競技規則에 慎重을
期하여 反則에 嚴重한 罰則이 있어야 하고, 規
則自體가 合理的이래야 한다.

네째: 用語의 統一 問題이다. 어떠한 스포츠
나 發展된 스포츠는 用語가 統一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跆拳道는 그 用語自體가 各樣
各色이며,甚한 것은 사람에 따라, 道場에 따라
다른 것이 있다.

身體部位의 運動의 用語는 大體로 解剖學에서
使用하는 用語를 使用하는 것이 原則이며, 技術
用語는 그 技術의 機能·型態·活動內容에 따라
이름짓되, 概念이 統一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그
러나, 一般人이나 初學者도 곧 內容을 알 수 있
을 程度의 平易한 名詞을 골라서, 쉽게 意思 疎
通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競技記錄法의 開拓의 問題 現代 스
포츠는 競技過程을 눈으로 보듯이 記錄되어야
한다. 그것은 競技 運營에도 重要하지만, 競技
過程의 評價와 技術, 矯正, 規則修正, 競技記錄
保存에 있어서는 아니될 重要的 것이다. 競技
記錄의 符號, 略語, 方法, 記錄簿의 形式內容設
定은 또하나의 큰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여섯째: 指導者의 養成 問題 跆拳道가 힘의
자랑이거나, 技巧의 曲藝師가 아니기에 <스포츠
츠>라는 家族에 入籍되었고, 또 그 까닭에 家門을
더럽혀서는 아니될 것이다. 스포츠는 指導者에
따라서 善良한 市民으로 培養되기도 하고, 險惡
反社會的 分子로 轉落되기도 한다. 體育은 元來

現存人間-反社會的要素=참된 人間
와 같은 公式으로 表示되는 教育活動이므로 反
社會的 要素인 動物的行動이 除去되도록 指導되
어야 한다. 그것은 곧 대무든 팔태를 하는 것과
같이, 現存人間에 대 무더 있는 動物的 行動을

★ 살짜기 봄소에 ★



去하여 人間行爲로 淨化하는 洗濯過程이라는
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或者는 動物
行動을 除去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敢
指導하여, 人間을 動物化시켜, 무섭고 두려운
社會의 分子로 만드는 수가 많다.

① 指導者란 人格과 誠意를 갖춘, 正열의 所
者래야 하며, 事理에 固고 判斷에 勿되지 말
야 한다.

② 指導者는 技術이나 理論에 밝은 者로서 指導
原을 豊富히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指導에 있
은 技巧만을 强要하는 수가 많으나, 技巧가
支의 全部가 아니라는 點을 아는 者래야 한다.

③ 指導者는 科學의이며 創案的인 者래야 한
〈내가 배울 때는〉따위의 因習의이며, 迷信
인 舊態依然한 方法으로 現代의 스포츠를 處
할 수는 없는 것이다. 文化의 發達과 人智의
興은 새로운 世代的 새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實에 비추어 새로운 智慧와 創案的 指導가 要
되는 것이다.

④ 指導者는 指導方法의 技術者래야 한다.

만만 많은 知識과 豐饒한 技術을 가졌다는 지
배도, 이 傳達의 方法과 그 傳達의 技術이 없
는 指導者로서 充分치 못하다. 이것을 經驗으
로 體得하기란 容易치도 않으려니와, 또 體得한
法이 唯一의 것이며 옳다고 斷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指導者야 말로, 跆拳道를 널리 세
에 펼 사람이니, 그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只
各處에서 指導者를 要求하고 있고, 특히 教育
關에서 要請했을 때, 서슴치 않고 안락을 갖춘
指導者라 推薦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
? 萬一 文教部가 或은 政府가 跆拳道를 獎勵하
다고 計劃이 서서 指導者를 내놓라고 한다면?
자답에 指導者는 指導者다운 사람을 키울 수
는 養成機關에서 培養되어야 한다.

跆拳道의 發展은 앞서 말한 6個項目에 內包된
個의 課題들이 빠짐없이 解決될 때에 비로써
되며, 그 어느 하나도 疎忽히 하여서는 안된
다. 특히 世界를 내다보고 이 發展을 꾀한다면
歐의 思考와 東洋의 哲學을 基盤으로 그 하나
나가 再審되어야 한다. 스포츠에의 參與는 强
이 아니라 自意的 參加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연재 곰돌이



태 권 도 교 실

TAE KWON DO ILLUSTRATED

담당 · 김 순 배

〈협회 경기이사〉

대한태권도협회 제정형이 1969년 제정 반포된지 어언 2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전국 130만 회원들에게 소개될 기회가 없었던차 이제 태권도 전문지가 발간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이론적인 지도를 담당하게 된 것을 전 태권도인과 함께 기뻐하는 바이다.

내용에 있어 통일된 용어와 통일된 기술을 함께 엮어 130만 회원의 지침이 되고 1000여명의 지도 사범에게 통일된 지도교재가 되길 바라면서 계속 착실한 내용을 연재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제 1회 분으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 주먹과 손, 팔, 발의 순서로 통일된 명칭과 방법을 실었다. 움직이는 동작과 형태는 다음 호에 실기로 한다. 본 협회는 130만 회원의 뜻을 받들어 구체적으로 이론적 설명을 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 지상 교실에 대한 내용은 인용하거나 복사 응용하는 것을 일체 금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 원문의 전재가 필요한 분은 사전에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거듭 주의할 것은 무단히 전재할 경우 출판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천해 두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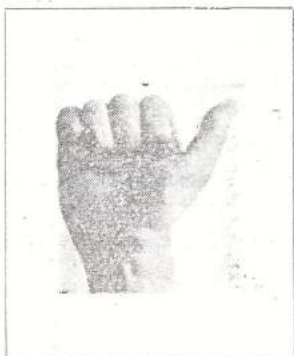
□ 주 먹 □

먹은 아래의 방법으로 쥐어진다.



①

←손바닥을 완전히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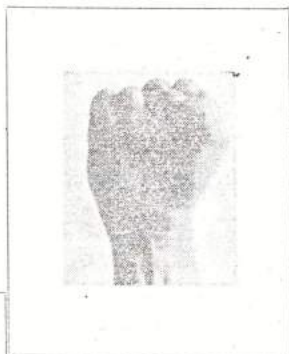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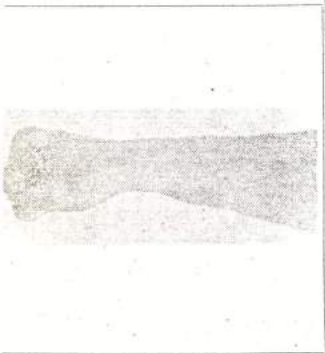
② 엄지를 제외한 손을 손끝지문 부분부터 손 바닥에 주름이 잡히도록 눌러 쥘다.

엄지를 안으로 구부려 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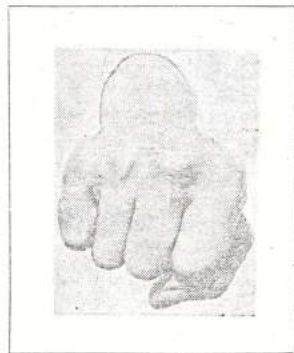
→



③



④



④ 주먹의 모양은 엷은주먹으로 봐서 팔목을 중심으로 팔목 관절과 직선을 이뤄야 한다. 그림 ⑦

⑤ 같이 직선이 되도록 한다.

⑥ 주먹공격의 무기부분 위소(位所)는 주먹췌며 마디중에서 인지와 중지부분이 주무기가된다, 그 ⑦의 두두러진 부분

⑧ 공격 대상주요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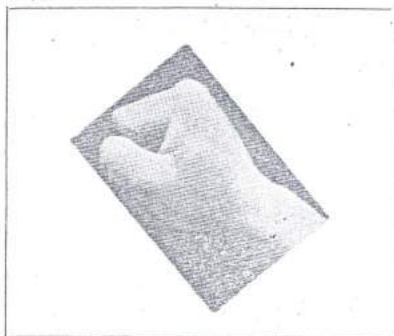
인중을 중심으로 앞턱과 양 턱 뼈

명치 아랫배 양옆구리

□ 등 주 먹 □

① 등주먹은 주먹과같이 첫 관절 부분이며 쥐는 방법은 주먹과 동일하다.

공격주요목표는 주로 안면 또는 동체의 두두려진 뼈와 근육사이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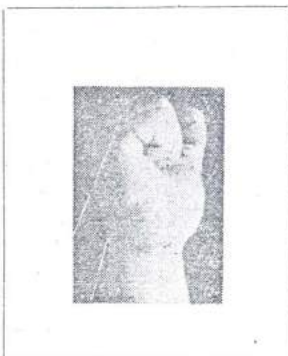


② 주먹을 등쪽으로 하여 안에서부터 몸 밖으로 내어치며 때로는 주먹을 재쳐 내리 칠수도 있다.

□ 메 주 먹 □

① 쥐는 방법이 주먹과동일 하다.

③ 주먹기부분은 장칼부분을 말한다. 새끼손가락과 팔목관절사이 근육이 많은곳.



② 공격주요부분은 연(軟)한 무기로 강(剛)한 곳을 치는 원칙에서 머리, 손목, 팔목, 관절 부분과 턱기와 공격을 겸하여 사용한다.

④ 메주먹의 명칭은 옆주먹과 밀주먹으로 공격 방어의 방향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 편 주 먹 □

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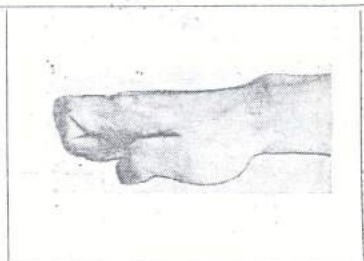
①



②



③



손바닥을 완전히 편다.

손끝 지문부분에서 둘째 마디를 꺾어 안으로 꾸부려 첫마디안쪽에 힘있게 부친다 엄지는 인지에 힘껏 꾸부려 부친다.

공격 무기 부분은 둘째 마디가 된다.

주공격 대상 목표

코밑, 인중, 턱골 사이, 복(슴통부분)

□ 밤 주 먹 □



① 쥐는 방법, 주먹과 동일함.

② 중지를 뽕죽히 내어민다.

③ 공격무기부분은 뽕죽히 내어민 중지의 둘째마디의 끝부분.

④ 공격대상 목표 인중, 골격사이, 근육부분, 관자 노리, 턱골 사이 외의 오목진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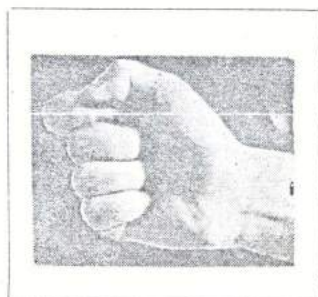
□ 인지주먹(통침방아쇠주먹) □

① 쥐는 방법 주먹과 동일하게 쥐고.

② 탐주먹과 같은 방법으로 인지의 둘째관절을 뽕죽히 내민다.

③ 공격 부위는 탐주먹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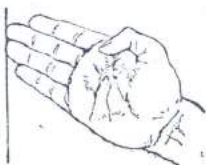
④ 공격 무기는 인지의 뽕죽히 내민 마디부분이다.



□ 찌 르 기(관수) □



- ① 손바닥을 보이게 편다.
- ② 네손가락을 전부 부친다.
- ③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오무려 힘껏 부친다.
- ④ 네손가락을 종(縱)으로 내려다볼때 첫마디 전부가 손 바닥 쪽으로 1도정도 안으로 구버진다.
- ⑤ 주무기 부분은 중지와 무명지 끝 손톱앞 근육이 된다. 찌르기의 원칙은 짧은 손끝에서 긴 손끝방향으로 치 치는듯 올려찌르는 것이다. (그림 ㉑, ㉒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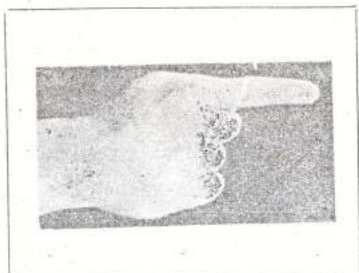


⑥ 주공격 목표

녹골 사이, 명치, 팔격과 근육사이의 연한곳

㉑ 명칭……선손끝, 어긋손끝 제친 손끝은 찌르기와 방법이 동일하며 세운것과 어긋것 제친것의 차이 뿐이다.

□ 한손끝(일본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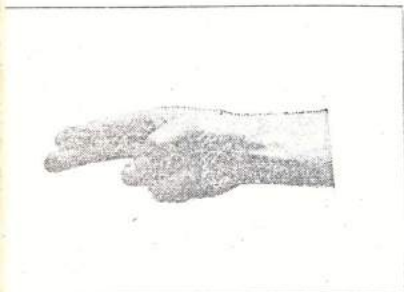


1) 한손끝은 인지만을 펴고 중지부터 무명지 새끼손가락을 안으로 꾸부려 부친다.

엄지는 중지 둘째마디 옆으로(인지와 중지사이) 눌러부친다.

2) 공격목표 찌르기와 같이 팔격과 근육 사이 연결이 된다.

□ 두 손 끝 □



◆ 방 법

한손끝과 동일하며 중지를 인지와 함께 부친다. 또한 V자로 벌리기도한다.

1) 주먹기부분은 중지가 되며 인지는 중지의 보조 역할을 한다. 단 V자로 할 경우 두손가락이 다
쳐진다.

2) 공격목표는 인지나 찌르기와 동일 하다. 또 눈알찌르기에도 쓰인다.

□ 장칼(수도) □



① 장칼은 찌르기와 동일하며 다음의 차이만 있다.
차이점

② 엄지를 손 바닥쪽으로 깊이넣지 않고, 약간 넣어 주어 꾸부린다.

③ 찌르기와같이 첫마디를 1도정도 안으로 꾸부리지 않고 중지를 힘주어 약간 꾸부려서 무명지와 거의 같게 만든다.

④ 밑팔목 쪽에서 새끼손가락 쪽 근육이 많은 손 바닥 모서리에 많은 힘을준다.

⑤ 옆장칼은 장칼과 동일하며 옆에서 밖으로 치는 것 말한다.

⑥ 주공격목표 대동맥 팔부 근육이 얇은곳.



□ 옆은 장칼(역수도) □



① 장칼 반대쪽 손 아금에서 인지 첫마디 쪽이다.

② 주무기부분은 첫마디를 중심으로 단련된곳.

③ 주공격목표 장칼과 동일하며 안면 광대뼈등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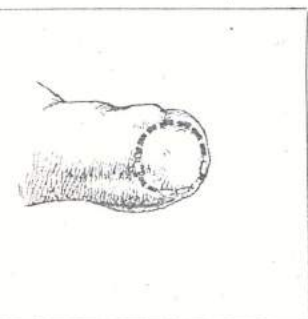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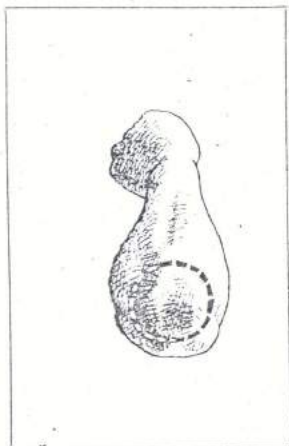


□ 팔 굽 (肘) □

팔굽은 상완골(윗팔뼈)과 하완골(아랫팔뼈)이 연결된 관절 뒷모서리

방법 주먹을 쥐고 안으로 꺾어 올리면 팔굽이 자연히 이루어진다.

주먹친 팔을 자기어깨 넘어서 올리면 안면 부분 공격되고 주먹을 가슴앞으로 빼면 중체공격이 된다.



④ 주먹기부분은 팔굽 돌출부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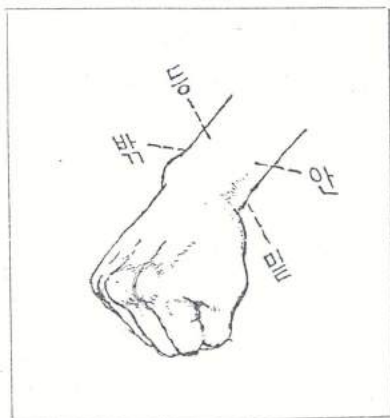
⑤ 주공격목표는 안면, 턱과 중체 전부가 된다.

□ 팔 목 □

① 팔목의 구분은 4가지로 구분한다.

- 1) 등팔목 2) 안팔목 3) 바깥팔목
- 4) 밑팔목

② 주공격목표는 막기를 원칙으로 주먹과 발의 공격을 막고 따라서 강하게 막으면서 타격을 주는 공격을 결합할 수 있다.



□ 곰배손(고수) □

- ① 곰배손은 팔을 앞으로 뻗어서 손목을 아래로 꾸부린다.
- ② 손가락 오무러진다.



- ② 주무기부분은 인지끝과 엄지지문부분이된다.
- ③ 주공격목표는 목숨통이된다.



□ 갈퀴손(搔手) □

- ① 갈퀴손은 할퀴는 모양으로 충분히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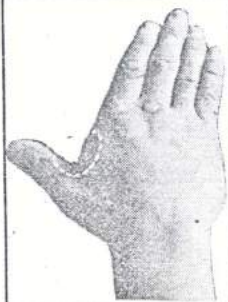


- ② 주무기부분은 다섯손끝이된다.
- ③ 주공격 목표는 눈과 입이된다.



□ 아금손(일명 칼잡이) □

- ① 아금손은 찌르기과같이 인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함께 부치고 엄지문을 벌린다.



- ③ 주공격무기부분은 손목, 관절쪽이된다.
- ④ 주공격목표는 안면턱과 복부심이고 막기도검할 수 있다.

□ 집게손(유비하사미) □

- ① 엄지와 인지를 V자형으로 벌리고중지부터 새끼손까지는 주먹쥐듯이 한다.

- ② 할퀴기에 주로쓰인다.

□ 손끝조기(쓰루바시) □

- ① 손끝을 한데모아 끝이 평행을 이루며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같이 붙어 인지와 무명지가 같이 붙은 위에 지를 위에 부친다.

- ② 주무기부분은 손아금이된다.
- ③ 주공격은 목숨통이된다.

□ 장칼바탕(일명 턱뼈기) □



- ① 장칼과 같다.
- ② 주무기는 장칼안쪽이된다.
- ③ 주공격목표는 턱과 늑골을 공격한다.

□ 발 앞 바 닥 □

발 앞바닥은 발바닥부분에서 발가락쪽 굽은 살 부분을 다.

발가락을 위로 치켜올리고 꺾여지는 발바닥쪽으로 상차게 된다.

주공격 목표는 앞차기, 반달차기, 차올리기 등이 된다.



□ 뒤꿈치 □

① 뒤꿈치는 발의 뒤측부터 복숭아 뼈 뒤부분을 전부 말한다.

② 뒤꿈치와 뒤측의 구분은, 뒤꿈치는 바닥 뒷 부분이고 뒤측은 있을 때 뒤꿈치 바닥을 뜻한다.

③ 주무기부분은 뒤꿈치와 뒤측의 모서리부분이 된다.

④ 주공격부분은 옆차기 몸돌려차기 등에 쓰인다.



(뒤꿈치)



(뒤측)

□ 발 모서리(족도) □

(ㄱ)

① (ㄱ)발모서리는 발 바깥쪽으로 뒤꿈치부터 새끼발가락쪽 중간부분이 못미쳐 가된다.

② 발가락을 전부 안으로 오무려야 힘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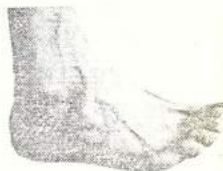
③ 주무기부분은 뒤꿈치쪽이된다

④ 주공격부위는 옆으로 차는 차기에 적용된다.

⑤ (ㄴ)그림과 같이 발가락을 위로 들고 차는 경우는 완전히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몸의 중량과 동시에 휘두르때는 힘이 크다.



(ㄴ)



협회 제정통일 용어

제 정 어	과 거 어
주 먹	正拳
등 주 먹	裏拳
옆 주 먹	橫拳
밑 주 먹	拳髓
편 주 먹	平拳
밤 주 먹	中指一本拳
인 지 주 먹	人指一本拳
한 손 끝	一本貫手
두 손 끝	二本貫手
선 손 끝	縱貫手
어 끝 손 끝	下平貫手
제 친 손 끝	上平貫手
장 칼	手刀(內)
옆 장 칼	橫手刀(外)
엎 은 장 칼	逆手刀
팔 굽	肘
안 팔 목	內小手
바깥 팔 목	外橫小手
등 팔 목	上小手
밑 팔 목	下小手
곰 배 손	孤手
집 게 손	指鉗
갈 귀 손	搔手
손 끝 쪼기	鶴嘴(취)
아 금 손	
장 카바탁	掌底
발	足
앞 발바닥	上足底
뒤꿈치	後踵
뒤축	足軸
반목	足首
발끝	足先
옆 발바닥	橫足底
발등	上足部
발모서리	足刀
앞차기	前蹴
뒤차기	後蹴

차	옆차기	橫蹴
	돌려차기	廻蹴
	연속차기	連續蹴
	잡고차기	抱蹴
	반달차기	橫廻蹴
	뛰며높이차기	一段高飛蹴
	뛰며앞차기	一段前蹴
	뛰며옆차기	一段橫蹴
	뛰며돌려차기	一段廻蹴
	두발당상	二段蹴
기	모듬발차기	結足蹴
	뛰어넘어차기	走越蹴
	몸돌려차기	身返蹴
	몸돌려뛰어차기	身返高飛蹴
	뛰며두발옆차기	二段橫蹴
	차방기	踏蹴
	후려차기	拑蹴
	비틀어차기	身曲蹴
	차올리기(앞, 옆)	直線足伸
	움겨디디기	動作變足
발	자진발	千鳥足
	한거름	一步
	세거름	三步
	돌기	身廻
	무릎치기	膝蹴
	모듬발	寄足
	미끄러발	滑足
	상체지르기	上段攻撃
	중체지르기	中段攻撃
	하체지르기	下段攻撃
작	세워지르기	縱突
	바로지르기	正面突
	재쳐지르기	上手正面突
	옆지르기	橫身突
	치치기	突上
	내려지르기	下突
	돌려지르기	廻突
	안으로치기	內突
	밖으로치기	外突

서	내려치기	拂落
	ㄷ자지르기	二段突
	차렷서기	氣着
	팔자서기	八字立
	안짱서기	內八字立
	꼬아서기	結立
	주춤서기	四股立
	무릎서기	騎馬立
	모아서기	閉立勢
	앞굽히기	前屈勢
기	뒷굽히기	後屈勢
	외발서기	一足立
	준비서기	準備姿勢
	편이서기	休
	고양이서기	猫足立
	상체막기	上段受
	중체막기	中段受
	하체막기	下段受
	앞막기	前受
	옆막기	橫受
막	안막기	內受
	바깥막기	外受
	올려막기	推受
	내려막기	拂受
	눌러막기	抑手
	걸쳐막기	掛手受
	헤쳐막기	搔手受
	불잡아막기	抱手受
	밀어막기	追受
	흘쳐막기	廻手受
기	들어막기	受手
	쌍장칼막기	兩手刀
	돌려막기	廻外受
	산틀막기	山構
	몽둥이막기	棒受
	몽둥이잡기	棒捌
	팔목막기	小手受
	맞겨루기	對鍊

태권도의 과학적인 연구 (상)

跆拳道 科學的 研究

—지도 연구의 방향—



白 龍 基

(중앙대학교 교수)

머 리 말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기쁜 일이다. 첫째로는 한국민족의 우수성을 외국 사람들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국제 친선을 가져오게 되며, 둘째로 선진국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국위를 선양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민족이 신라시대나 고구려시대의 상무의 정신과 무사도의 전통을 이어 받은 우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 각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광복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업적에 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만 만족해서는 앞으로 세계인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을 각성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올림픽 대회에서 손기정(孫基稜)씨가 마라톤에 우승하였으나 오늘의 한국 마라톤이 그 때로 우위에 열하고 있지 않으며, 역도(力道)가 일본에 뒤떨어져 있는 사실을 볼 때에 태권도가 인재 우위에 열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권도를 더욱 전 세계에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가일층 기술을 연마하여 실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태권도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아울러 철학적인 신념과 과학적인 이론을 기초로 한 연구가 있어

야만 태권도의 가치를 더욱 인정하게 될 것이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의 정상에서 그대로 우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속하지만 장래를 걱정하는 생각에서 감히 태권도의 과학적인 연구라는 제목으로 천박한 식이나마 연구 과제를 제기하여 보기로 한 것이다.

본 론

I. 태권도의 철학적 의의

1. 태권도는 인간의 진실성을 배양하는 인성수양의 길이다. (인간은 진실한 존재이다)
2. 태권도의 모든 형(型)은 생명의 약동이 공간을 메우는 힘의 표현이다. (우주는 힘이 있다)
3. 태권도는 심신의 조화적인 신체활동을 한 행동예술이다. (공간을 메우는 미의 극치)
4. 태권도는 극기(克己), 자제(自制), 자율인 정신과 정의와 예의를 존중하는 인간수양으로서 평생을 일관하는 생활철학의 정신을 양계 한다. (생활의 기본정신)
5. 태권도는 인간의 체력과 지력과 기술과 신을 종합한 조화적인 스포츠이며 해부(解剖)생리, 역학의 과학을 응용하여 기(技)의 수련을 실천하는 과학적인 운동이다. 또한 심신을 단련하여 인간의 생활력을 강화하는 인간수양도(道)이다. (과학을 이용하여 생활력을 강화)
6. 태권도는 세계 각민족의 생활운동으로 개되어 민족 상호간의 친선과 이해를 연결하

■ 명 언 ■ 진실한 장부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팔레옹

서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이상으로 한다.
(태권도를 통한 세계민족의 친선)

I. 태권도의 교육적인 가치

태권도의 수련을 통하여 강인(強靱)한 정을 기르게 한다.

체력과 기술을 향상케 하여 호연지기(浩然)를 기르게 한다.

신체 기능을 향상 발달시킨다.

근면한 습관과 단정한 태도의 육성.

극기, 자제, 예의와 정의감을 가지게 한다.

자율적인 정신을 스스로 기르게 한다.

과감성, 용기, 인내력, 근기, 성실성을 가하여 일상생활에 적용케 한다.

책임, 질서, 봉사적정신을 길러 사회생활에 적인 정신자세를 갖추게 한다.

자기일에 일념정진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사회에 할 수 있는 성실한 인간을 육성하게 하여 민란전에 기여하게 한다.

II. 태권도를 통한 심리적인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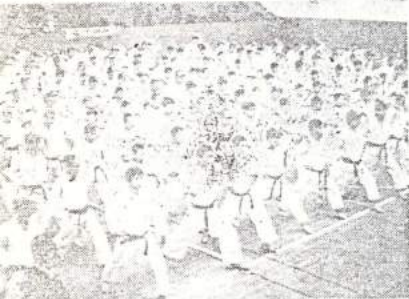
태권도를 배우려는 동기

신체가 허약하여 체력을 육성하고자 한 것.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을 목적으로 한 것.

부모가 시켜서 배우게 된 것.

타인에게 피해를 당하여 흥분한 끝에 시작 한 것.



5) 태권도 선수의 경기를 보고 경탄하여 배우고 싶게 된 것.

6) 격파하는 위력에 감탄하여 자기도 하고 싶게 된 것.

7) 외국에 가서 외국사람을 지도하면서 돈을 벌고 장래에 잘 살고 싶은 것.

이상 매거한 동기에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다. 지도자는 그들이 어떠한 동기 유발로서 태권도를 시작하였던간에 청소년을 지도함에 있어, 실기를 지도하기에 앞서 먼저 정신적인 자세의 확립을 위한 지도를 해야할 것이며 인간교육으로서의 예의, 태도, 규율, 복종, 질서, 행동교육의 기반을 닦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단계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를 요하게 된다.

2. 대상과 개인차

1) 개성의 차

태활, 용감, 명량, 근면, 순종, 강인, 정직, 성실, 책임감, 협동, 봉사적, 민감, 자율성, 원만, 우호적, 외향성, 적극성, 사교적, 적응성, 근기 등의 개성의 차가 있으며 이와 반대의 성격이 있다.

위축, 비겁, 침술, 태만, 반항, 나약, 부정적, 불성실, 무책임, 비협조, 이기적, 문감, 미동적, 비굴, 배타적, 내향성, 소극적, 고독성, 독자성, 무기력 등의 성격이 있어 이와 같은 성격의 개인 차가 있다.

2) 연령의 차

- ① 5~6세 유년기.....발육
- ② 7~12세 소년기.....성장
- ③ 13~15세 청년제 1 충실기
- ④ 16~19세 청년제 2 충실기
- ⑤ 20~24세 청년완숙기 화골(化骨)성숙기
- ⑥ 25~49세 장년기.....인간완성
- ⑦ 50~60세 노년기.....유지
- ⑧ 61~ 노쇠기.....노쇠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 ① 유년기—체력이 극히 약함.
- ② 소년기—근력과 관절이 약함.
- ③ 청년제 1 충실기—신장에 비하여 체력이 약

함.

- ④ 청년제 2 충실기—피로회복이 잘 된다.
- ⑤ 청년 완숙기—체력이 가장 왕성함.
- ⑥ 장년기—지구력이 강함.
- ⑥ 노년기 및 노쇠기—체력의 저하와 활동력이 감소된다.

3) 체격의 차

- ① 세장형 신장이 크고 근육이 부족하며 흉위가 작다.
- ② 비만형 지방이 많고 흉곽이 넓으며 다량의 근육이 있다.
- ③ 근육형 근육의 발달이 잘 된 체격으로 체력이 왕성한 자.
- ④ 뇌형(腦型) 체소하고 단신이며 체력이 약한 자.

4) 성별 차

- ① 남자는 대개 체격이 크고 체력이 강하며, 동작이 빠르고, 성격이 여자에 비하여 활발하다.
- ② 여자는 체격과 체력이 남자에 비하여 작고 약하며, 성격이 유순하다.

5) 기능의 차

선천적인 소질의 차, 체력의 차, 사고 판단력의 차.

6) 취미의 차

- ① 처음부터 취미를 가진 자.
- ② 처음에는 흥미가 없었으나 점차 취미를 느끼게 된 자.
- ③ 흥미는 없으나 할 수 없이 따라 하게 된 자.(군대, 학교)

이상과 같이 대상에 있어

개인, 연령, 체격, 성, 취미 등의 개인차가 있어 심리학적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3. 태권도 수련을 통한 성격의 개선

1. 연간 매일 1시간~1시간반 정도의 수련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1) 비겁(卑怯)→대담(大膽)
- 2) 불성실(不誠實)→성실(誠實)



- 3) 침울(沈鬱)→명랑(明朗)
- 4) 태만(怠慢)→근면(勤勉)
- 5) 타율적(他律的)→자율적(自律的)
- 6) 내향성(內向性)→외향성(外向性)
- 7) 배타적(排他的)→우호적(友好的)
- 8) 비협조(非協調)→협조(協調)
- 9) 나약(懦弱)→강인(強靱)
- 10) 위축(萎縮)→쾌활(快活)

선천적인 성격은 체력과 기술의 단련으로 결함을 개선할 수 있으며 태권도를 통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후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넓은 의미로서 크게 말하면 국민 전체가 태권도를 매일 다만 10분간만이라도 국민운동으로 실천하게 되면 국민의 기질을 향상시켜 국민성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4. 정신적인 발달과 정신안정

천군태연(天君泰然)에 백체종령(百體從令)이란 말은 정신안정과 통일에서 신체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 말은 모든 신체활동이 지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신안정과 정신통일은 태권도를 1년이상 수련하게 되면 자연히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감각기관의 발달과 운동신경의 발달이 잘 되면 기술의 향상과 동시에 정신안정을 기하게 된다.

7. 태권도의 생리학적 고찰

골격과 관절 및 근육의 작용

태권도의 모든 운동은 근육의 신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관절의 연결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 관절이 유연(軟)하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관절은 유연체조를 행함으로써 가동 범위를 크게 할 수 있다.

몸을 각방면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다리의 민첩한 동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머리, 팔, 몸통은 목관절,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관절의 유연으로 근육의 굴신작용에 의하여 신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태권도의 모든 동작은 전신의 이완된 근육을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여 공방의 동작을 정교하게 하는데 기술을 충분히 발휘하게 된다.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연결될 때는 일단 적극적으로 근육이 해진(解緊: 긴장에서 풀리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근육은 신경의 자극에 의해 움직임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일단 긴장되기 전에는 다음 동작을 민첩하게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관절의 유연성과 지지작용, 지지작용, 공방(杆: 지레)작용과 근육에 의한 관절을 통한 동작작용을 한다. 필자는 태권도 연습이나, 시합을 볼 때에 일반적으로 동작이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음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신경근의 계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도장에서 지도하는 상태를 보면 처음부터 자세로 서서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바로 주운동을 하는 것은 자동차나 기차가 급출발하는 것같이 신체 각기관에 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심분장의 전신의 굴신운동을 하여 신체 각부의 근육과 관절에 혈액순환을 시켜 체온을 조절함으로써 근육운동을 무리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운동을 마친 후에도 일정 정도의 전신운동을 서서히 행하여 몸풀기를 하면 근육의 피로가 풀리고 근육도 유연

하여 항상 탄력성을 유지하게 된다.

평상시에 가벼운 아령체조, 곤봉체조, 줄넘기와 자기 체중을 이용하여 행할 수 있는 체조는 근육의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되므로 보조운동으로 행하는 것이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

태권도는 신체가 세장(細長)하거나 너무 비대해서도 안되며 적당한 체중과 근육을 가져야 된다.

물론, 동작의 기민성은 비대한 편보다는 약간 체중이 가벼운 편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동절(多節)에는 근육의 경직(硬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내의를 입어 보온을 해야 한다.

2. 운동과 호흡관계

인간이 최대의 힘을 발휘할 때에는 그 순간에 호흡을 중지하여 동작을 한다.

무거운 중량을 들 때나, 던질 때에 호흡을 중지하게 되는데 이 현상은 노력작용(努責作用)이라고 말한다.

태권도에서는 보통 연습할 때에 대개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면 동작할 때마다 코로 호기(呼氣)하면서 동시에 동작을 한다. 간혹 호흡을 중지할 때도 있다. 특히 격파(물결)할 때에는 정신을 먼저 통일하여 반드시 성공할 것을 결심한 후 "야——!"하고 소리를 내어 격파하는 순간 숨을 달고 행한다.

그러나 신속하게 동작을 계속할 때에는 호흡을 중단하고 연속동작을 행하는 경우가 생긴다. 운동후에는 3회 이상 심호흡을 하여 폐의 산소부채(酸素負債)를 회복시켜 체내에 다량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위생상 좋은 것이다.

운동이 격렬할수록 항상 체내에는 다량의 탄산가스가 발생하므로 호흡작용으로 가스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피로회복을 빠르게 한다.

호흡은 가능한 한 코로 드려마시고 코로 호기라는 것이 위생상 좋으나 극히 피로할 때에는 입으로 호기하는 것이 편한 것이다.

심호흡은 정신통일 및 정신안정에도 필요한 것이다. (다음호 계속)

태권도는 나의 활력소



차 영 민

〈도자의원원장·불광전민조기회회장〉

내가 불광동에서 병원을 차린지 3년째 되던 해 파로 끝에 당뇨병(糖尿病)을 얻게 되었다.

의사(醫師)인 나는 몹시 당황했고, 식이요법(食餌療法)을 비롯해 모든 방법을 써서 치료에 힘 썼으나 입원실에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고 그만큼 실망도 컸다.

운동부족을 직감한 나는 아침일찍 일어나서 뒷산을 올라도 보고 옥상(屋上)에서 여타가지 체조로 몸의 부담을 줄여 보려고 노력했다. 이것도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 실의(失意)에 빠진 나는 정신적인 면에서나마 여생(餘生)을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아래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같이 상록회(常綠會), 복지회(福地會) 등을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살아 있는 상록의 열을 심어보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지금으로 부터 3년전 우연히 태권도 사범을 소개받고 저로 인사를 나눈 끝에 첫말에 나같은 나이에도 태권도를 할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 계기가 되어 몇몇 친지와 조기회(早起會)를 만들어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 시절부터 운동이라면 무엇이냐 빠지 않고 태 본 경력을 갖고 있는 나였지만 태권도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자 몸은 말을 잘 듣지않고 지병인 당뇨병은 악화되어 몸은 말 할 수 없이

수척해 졌다. 술은 차고 목은 타지만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 한번 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플리는 나로서 증도에서 그만 둘 수는 없었다. 인내와 끈기로 수련(修鍊)에 입한 보람이 있어 1년이 지나고 점점 피(초단)를 두들때 그 기쁨은 한량없었고 몸도 놀랄만큼 좋아졌다.

소화력(消化力)도 왕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리에 힘도 생기고 체력도 많이 향상되어 내 개인 뿐 아니라 온 가족의 경사가 되었다.

그해 추계(秋季) 야유회에서는 축구, 배구, 옥상 등 모든 부분에서 젊은이들을 물리치고 각종 상은 물론, 최고 인기상(最高人氣賞)을 탔고 더우기 신체가 건강해졌음을 실증한 기회가 되었음은 태권도를 통한 내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로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나와 몇몇 동지들은 출석부(出席簿)를 만들어 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수련과 후배의 양성에 온갖 정성을 다기울이고 있으니 여기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이다.

물론 태권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태권도를 통해 인생의 활력소를 찾았고 50고개를 넘어서 젊은이들과 같이 땀 때 내 자신 젊어지는 것 같고 건강한 몸으로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감격을 안고 산다.





태권도인 열전 ☆ 跆拳道人 列傳

[제 1 회]

고려재상 高麗宰相

이의민(李義旼)은 고려(高麗) 의종(毅宗) 임금
경상도(慶尙道) 경주(慶州) 사람으로서 태권
씩 잘하는 선기자(善技者)였다.

태권이란 오늘날의 태권도(跆拳道) 원류(源流)
서 고려사(高麗史)에는 수박희(手搏戲)라고 기
되어 있는 것이다.

이의민의 아버지는 소금장수 또는 제장수로 머
아 다니는 장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연일현(延
縣) 옥령사(玉靈寺)에 딸린 계집종이었다.

천민계급(賤民階級)에 속하는 가난하고 구차
집안에 태어난 이의민은 어려서부터 학문(學
問)을 배울만한 환경이 못되었다.

그는 어릴 때 푸른빛 옷을 입고 황룡사(黃龍寺)
층탑(九層塔) 위에 올라간 꿈을 꾸었는데 사
들이 말하기를 장자 크게 출세하리라 했다. 자
나면서 8자 큰 키에 힘이 뛰어나게 세어서, 옛
신라(新羅) 화랑도(花郎徒)가 심신(心身) 수
(修鍊)을 위해 행한 태권을 배워 익히게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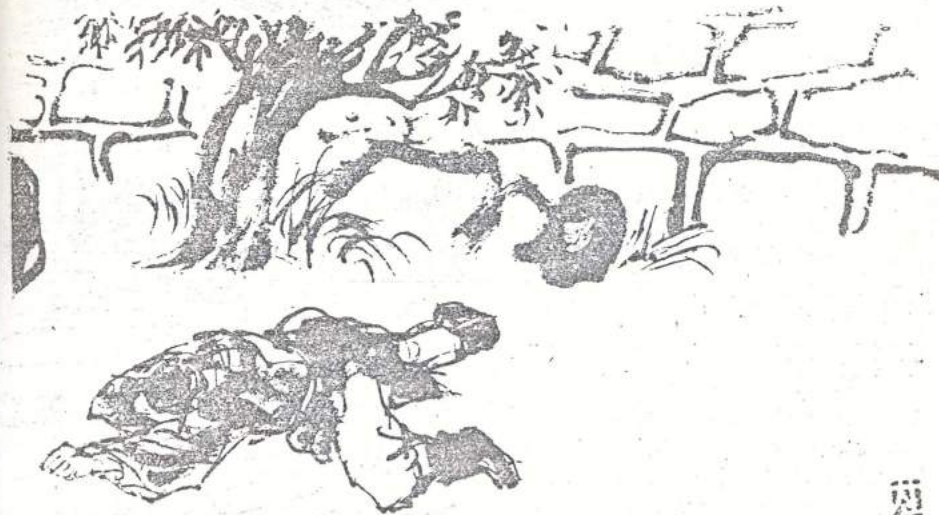
위로 형이 들어 있었는데, 일정한 일도 없이
놀면서 거리를 쏘다니다가 싸움질이나 하고 행
매를 부리기가 일쑤였다.

사람들은 이의민 형제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
그래서 안렴사(按廉使) 김자양(金子陽)이 이들
삼형제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옥 속에서 두 형은 뼈적 말라 그만 죽어버렸
으나, 오로지 이의민만은 살아 남았다.

김자양은 홀로 살아 남은 이의민을 보고 참으
로 장하다고 생각하여, 경군(京軍)의 군사로 뽑
아 있게 해주었다. 경군이란 서울의 각 영문(營
門)을 지키는 군대로서, 고려 때에는 용호군(龍
虎軍)과 응양군(鷹揚軍)이라 불리는 경군이 있
었다.

이의민은 이제 사람이 달라져서 근무에 충실
했다. 그리고 틈 있는대로 일찌기 자기 몸에 익
힌 태권을 더욱 힘써 수련했다. 고려 때에는 이
태권을 수박희(手搏戲)라 불리, 군사들에게 혼
련시킨 십팔반(十八般) 무예(武藝)의 한 종류이



91

이 의 민

글 · 趙琬默

그림 · 洪性鑽

다.

이의민은 이 수박회를 썩 잘하여 감히 겨룰만한 상대자가 없었다. 그는 대정(大正)이 되었다.

이때, 의종(毅宗) 임금은 놀이를 즐기고 또한 군사들의 무예를 겨루는 구경을 좋아해서, 이의민이 수박회 잘 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미쁘게 여겨 그를 대정에서 별장(別將)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그런데, 의종 임금은 원래 마음이 약하고 놀기만을 좋아하여 기분 내키는대로 행동하였다. 더구나 간사한 내시들의 꾀임에 빠져 나라 일은 돌보지 않고 방탕한 환락(歡樂)에 세월이 가는 줄 몰랐다.

임금이 이러하니, 경박한 무리들은 의종을 싸고 돌며 갖은 못된 짓과 심지어 무인(武人)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심했다.

그러나 무인들은 억지로라도 분노를 참추고 참았다. 참고 참추기는 하되, 언젠가는 터지고야 말 활화산(活火山)같은 분노를 잔적하고 있었다.

의종 24년(서기 1170년) 8월 30일. 임금이 가까운 잔신배와 더불어 연일 놀이에 들떠서 즐기며 행차가 보현원(普賢院)으로 옮겨졌을 때, 대장군 정중부(鄭仲夫)와 이의방(李義方), 이고(李高) 등 임금을 호종하던 무인들은 드디어 분노의 화산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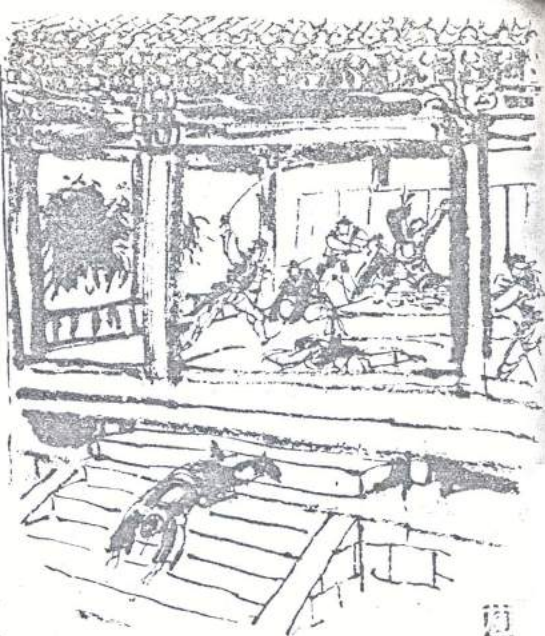
임금을 둘러싸고 있는 내시와 간사한 무리로서 임금을 따라온 문신(文臣)들은 보현원에서 모조리 죽여버렸다.

한번 칼을 빼어 든 무인들은 거센 물결이 되어 평소에도 무인을 멸시하던 문신들이면 비록 낮은 벼슬아치까지라도 종자를 남기지 않고 살살이 가려내어 사정없이 죽여 없앴다.

이때에 문신과 환관(宦官=내시)은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2일이 지난 9월 2일에는, 정중부, 이의방 등이 의논 끝에 의종 임금을 폐하고 그대로 거제도(巨濟島)로 내쫓아 버렸다. 이 무인의 쿠데타를 <정중부의 난>이라고 한다. 이로써 고려는 무인들이 정

잡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정중부가 주동이 되어 변란을 일으킨 무인
난 때에, 이의민은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문
환관을 때려잡는데 용감부쌍했다. 실로 술
사람을 이의민의 손으로 죽인 것이었다. 이
공으로 말미암아 이의민은 중랑장(中郎將)
되었다가 뒤이어 금방 장군(將軍)으로 올랐
이후, 이의민은 정중부의 심복으로서 활약
세력이 자못 커지기 시작했다.

종(明宗) 3년(서기 1173년) 8월에, 동북면
사(東北面兵馬使) 간의대부(諫義大夫) 김보
당(金甫當)이 반란을 일으키자 장순석(張純錫)
남로병마사(南路兵馬使)가 되어 유인준(柳寅
준)과 더불어 경주(慶州)를 근거로 하여 의종임
거제도에서 경주로 모시고 나와 복위(復位)
하려는 계획 아래 군사를 일으켰다. 이 소식을
정중부, 이의방은 즉시 이의민으로 하여금
를 이끌고 나가 치게 했다. 김보당은 반란을
킨지 20여일 후에 잡히어 죽고, 장순석은 경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 죽음을 당했으며, 유
도 잡히어 목을 잘라 죽었다. 경주 사람들
호응으로 쉽게 반란을 평정한 이의민은, 의
임금을 곤원사(坤元寺) 북쪽 못 가로 끌고가
침침 술을 권하고는 느닷없이 달려들어 수박
씨 의종 임금을 후려치니, 의종 임금은 그
등뼈가 꺾어져서 목숨이 끊어졌다. 의종 임



금이 죽는 꼴을 보고 이의민은 히죽 잔인한 웃
음을 띠었다고 고려사(高麗史)에는 기록되어 있
다. 이의민은 남쪽을 완전히 평정한 공로로써 대
장군(大將軍)이 되었다.

이듬해에는 서경유수(西京留守) 조위충(趙位
寵)이 반란을 일으켜, 이의민은 또한 정동대장
군 지병마사(征東大將軍知兵馬事)가 되어 동로
(東路)로 나가서 서병(西兵)과 싸워 절령(田嶺)
이북까지 평정하고, 상장군(上將軍)으로 올랐다.

경대승(慶大升)이 정중부를 죽이게 되자, 아
의민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 병을 앓는다고 핑계
를 대고 자기 고향(경주)으로 내려갔다. 이따금
조정에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경대승이
죽은 뒤에 임금은 특히 중사(中使)를 보내서 불
렀고 공부상서(工部尙書)를 내렸다. 사람들은 이
의민을 다시 불러들여 높은 벼슬자리에 앉게 한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은혜를 배운 것을 임금이
약한 탓이라고 탄탄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이
의민은 수사공좌복사(守司空左僕射)를 더하게 되
고 명종 20년에 동중서문하평장사 판병부사(同
中書門下平章事判兵部事)가 되었다. 판병부사는
오늘날의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과 같은 벼슬
이다.

이의민이 일찍이 양쪽 거드랑 사이에서 붉은
무지개가 일어나는 꿈을 꾸고는 자못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옛날 비결(秘訣)에 “송(龍)

의 자손은 12대로 끝나고, 새로 십팔자(十八子)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 용의 자손이란 고려왕족(王族)을 가리킨 것이고, 십팔자는 곧 이(李)자라는 말을 듣고 은근히 야망을 품고서 이름있는 사람들을 모아 들어 회세를 부리며 자기가 임금될 궁리를 하게 되었다.

이 무렵, 남쪽에 도독놈의 무리가 일어나 세상을 어지럽혔는데, 김사미(金沙彌)라는 자는 사찰(寺刹)을 중심으로 모였고, 효심(孝心)이라는 자는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를 모으니 그 세력이 자꾸 커져서 좀처럼 꺾을 수가 없었다. 그 까닭은, 이 의민이 은밀히 이 도독놈 무리와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의민은 이들 무리를 이용해서 자기 고향인 경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킬 작정이었다.

이의민은 나랏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벼슬을 팔고, 백성의 집과 논밭을 빼앗아 자기 집을 크게 늘리고 탐학을 일삼아도 그 세력에 눌려서 온 나라 사람들은 두려워 누구나 벌벌 떨기만 했다. 이의민의 아들들도 역시 아버지의 세력을 믿고 포악한 행동을 마음대로 하였으니, 그중에서도 지영(至榮)과 지광(至光)이라는 두 아들은 유독 심했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쌍력자(雙力子)라고 말했다.

명종 26년(서기 1196년) 4월, 이의민의 아들 지영이 장군이 되어 뽑내는 세력을 믿고, 최충



수(崔忠粹)의 집에서 기르는 집비둘기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 최충수는 화가 나서 그의 형 최충현(崔忠獻)에게 일러바치면서 이의민 부자(父子)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충현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가만히 기회를 엿보다가, 때마침 이의민이 미타산(彌陀山) 별장에 나가있는 것을 알고, 최충현 형제는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 이의민을 죽이고 그의 모가지들을 잘라 저자(市場)에 효수(梟首)하였다.

이의민의 아들 지순(至純)과 지광(至光)은 이번을 듣고 자기 집에서 부리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거리에서 최충현 형제가 거느린 군사와 싸우다가 당장할 도리가 없어 도망을 쳤으나 모두 최충현에게 잡히어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의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삼족(三族)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집 중들이나 패거리들도 방곡곡을 뛰쳐서 잡히는대로 모조리 참령되었다.

이의민은 미천한 집에서 태어나 학문을 배우지 못해 글자는 몰랐지만, 다만 타고난 힘이 있어 수박피(오늘날의 태권도)를 잘한 때문에 세하여 한때는 나랏일을 한손에 잡고 주무르던 권세와 최고의 영화를 누리다가, 세도를 너무 막고 방자했던 때문에 영원히 씻지 못할 더러운 이름을 남기고 집안을 망치고 말았다.





—해외 파견 사범의 현황과 우리의 자세—

제부턴가 우리는 입국(立國)이란 말을 자주 썼다. 글자대로 풀이해 본다면 그 뜻은 '나 세운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공업입국>하면, 공업을 발전시켜 그 된 공업으로 건국의 바탕을 삼겠다는 뜻이고, 농업입국이니 수출입국도 분야만 다물뿐 뜻을 내세운 것이 된다.

역진흥공사(貿易振興公社)앞을 지나가는 사람 그 옥상(屋上)에 설치한 현관판을 볼수 있다. 이는 13.5억불. 그날마다의 수출실적이 앞면 표시된다.

런데 그 실적이 며칠씩이나 얼어붙은듯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떤 불안같은 것을 느끼 된다. 이러한 불안은 비단 어느 한 사람만의 까. 적어도 그 방면에, 아니 그앞을 지나면 관심을 가지고 보아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의 우수상품이 세계의 수요자에게 퍼져나가 애용되고 칭찬도 받고, 외화(外貨)도 벌어들여야 우리의 살림이 윤택해질 것은 필요도 없거니와 수출과 비례해서 국위도 떨 것이므로 누구나가 수출관계관의 입장에

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전혀 의미없는 일은 아닌 성싶다.

요즘 우리나라의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 진출 상황을 대충 훑어보면 남북 미주(南北美洲)에 210명을 비롯해서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의 각처에 360명이 나가 도장을 세우고 그곳에 우리 국기(國旗)를 걸어놓았다. 그리고 우리말 구령에 맞추어서 세계인을 상대로 수련을 시키고 있다.

예컨대 우리 사범이 가장 많이 진출한 미국에서는 불과 6살짜리 꼬마로부터 60이 넘는 노인 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익히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 사범이 운영하는 도장을 비롯, 각지의 YMCA, 대학체육과 등을 통해 우리사범 지도아래 태권도가 널리 번져 나가고 있다.

미국은 해방을 전후해서 특히 6.25사변당시 우리를 도와준 혈맹(血盟)의 우방중의 하나. 지금도 우리를 돕고있는 맹방(盟邦)이다. 그 나라에 지금 우리의 태권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편 지난 1970년 12월 5일에는 상원의원인 「필튼 알 영」씨가 그나라 국립 태권도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되어 오랜 그들의 꿈이 현실화 돼서



미국 태권도협회
밀튼 영 회장

활기에 차 있다. 그 이면에는 개인 도장의 장이며 미국립태권도협회의 사무총장인 이준구 사범의 숨은 공로가 컸다는 사실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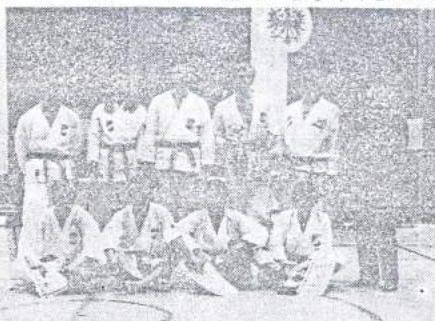
또한 유럽을 살피보면 편재해, 서유럽 사범들이 서독 문헌에도 장을 열어 많은 독일

인들을 지도하고 있고, 함께 갔던 이경명 사범은 「오스트리아」로 옮겨 「인스부르크」에서, 「터기」에는 조수 세 사범이, 기타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많은 우리 사범들이 그들을 지도하고 시범대회도 가지며 다채롭게 태권도를 심고 있다.

중동의 「이란」하면 석유의 나라. 옛날의 찬란했던 페르시아문화의 나라다.

지금까지도 왕국으로 남아있는 이 나라에는 일찌기 일본의 소위 가라데(空手)가 들어가서 득무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 우리나라 외교공관(外交公館)에 부임한 함광식씨가 태권도를 한다는 소문이 돌자 이란당국자의 주선으로 왕의 어전에서 태권도 대가라데의 시합이 벌어졌다.

그런데 비열하게도 사전약속을 어기고 난폭하게 나오는 가라데를 침착하고 세련된 솜씨로 그를 꺾어놓았다. 그러자 그때까지만 해도 가라데를 세계 제일로 알았던 이란인들이 손과 발을 멋지게 구사하는 태권도에 대한 새로운 인상을 받게 됐고, 굴복한 가라데사범은 다음날 여행 가방을 챙겨 들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오스트리아의 이경명사범과 수련생들

그후 합사범으로부터 군·경·왕실경호 학생 등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으며 합사범로가 인정되어 훈장을 5개나 주었을 뿐 태권도를 하는 우리나라의 꼬마들을 초청하던 완실경호관원을 우리나라에 2명이나 하는 등 바야흐로 태권도의 회오리를 일으켰다.

그런가하면 멀리 대서양에 면한 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상아해안)에 있는 2사 「프랑스」인이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했다. 김영태 사범으로부터 그곳에서 배우

는 이들이다. 그곳에서 타데가 있었으나 태 때문에 차츰 빛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는 전한다.

동남아에도 태권도는 거세다.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우리 태권도 에 관해서는 이미 히 알려진 바 있기

기서는 새삼스런 소개가 필요치 않겠기에 하겠거니와 교관단 말고도 많은 우리 사범들 남아 전역에 태권도를 심고 있다.

이상 몇가지 예는 세계에 뻗은 태권도 중에서 지면관계로 그 일부분을 엿본데



해외에서 활약하는 사범들의 포스터. 왼쪽이 서독 서윤남 사범, 오른쪽 터키의 조수세 사범.



아이보리코스트에서 활약하는 김영태사범 도장의 수련생들.

그러던 가라데를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는 어가?

일본에서도 우리 태권도는 당당하다. 가라데술을 해치고 여러곳에 태권도장이 의연(毅然)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엔 그들에게 초청을 받은 우리 사범들이 후지(富士) T, 를 통해 태권도의 묘기와 실력을 보여주어 일들을 그야말로 깜짝 놀라게 했다. TV프로는 '빅구리 쇼'였는데, '빅구리'라는 말은 '깜짝 놀라'는 뜻이다, 일일들 중엔 태권도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라데만을 알아온 것도 무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 가라데를 능가하는 태권도의 실재를 보고 깜짝(빅구리) 놀랐으니 좀 아터니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태권도보다 한발 앞서 해외에 출한 일본의 소위 가라데 사범과 도장의 수보 우리의 그것이 뒤지고 있는 아픈 실정을 슬리 시인치 않을 수 없다.

이 마당에: 우리는 그나마 해외에 그만큼 파냈노라고 뽐낼 것이 못된다. 그렇다고 무턱대 확장을 서둘러 조바심만 칠 수도 없다.

우리 태권도를 세계에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는 적지않은 문제들을 앞에놓고 있다. 정신인 자세도 그렇고 실력면에서도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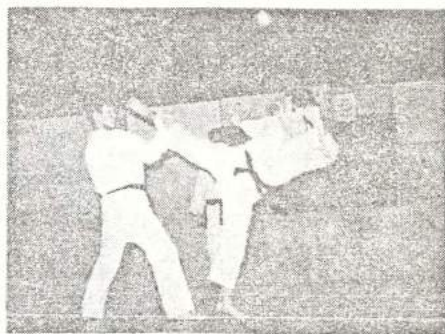
우리가 태극기를 많이 걸고 우리말 구령이 도에서 들리게 하려함은 국위를 빛내는 동시에 권도를 널리 퍼서 체육인의 긍지를 과시하자

는 것뿐이며 소위 가라데를 앞서라 함은 그에대한 시기나 배타(排他)의 뜻에서가 아니다. 더우기 일본에 대한 구원(舊怨)을 풀고자함도 아니다. 오직 우리 태권도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인식·보급시키므로써 세계지도 위에 우리의 국위를 뚜렷이 알리자는 데에만 있는 것이다.

사범이 받는 보수를 늘려 외화를 벌자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외화를 버는일은 상공부가 맡아서 하고 있다. 우리 태권도인은 순수한 체육인으로서의 참신하고 강의(剛毅)한 정신과 긍지(衿持)와 자부심으로 일에 임해야 한다.

해외에 퍼려면 심의·홍보활동에도 힘써야 할 것이나 그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단결이며 또 그에 앞서는 것은 힘(체력과 기량)을 배양해야 할 것이니 이 방면에 온 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제가 해결되는 날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발은 세계의 어느곳에나 나부낄 것이며 우리의 구령이 또한 세계의 곳곳에서 메아리질 것이다. 그날 세계의 어느곳에 있든지 결코 우리는



아이보리코스트에서 태권도를 배우러온 수련생들.

의를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 태어난 보람을 실감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밝은 앞날을 위해 지금은 오직 피나는 수련만이 있을 뿐이다.

성공의 그날을 위해 우리 모든 태권도인은 <태권도 입국>의 기치(旗幟:깃발)를 높이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본다. [洪性續 記]

태권도 장학제도 신설 및

1970년도 장학생 명단 발표

협회는 태권도 유단자중 우수한 선수를 선발, 그들에게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장학제도를 신설 장학생 전형요강과 아울러 1970년도 장학생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장학생 전형 요강

제1장 총 칙

1. 목 적

태권도 선수로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고 강태가 촉망된 유망한 학생을 전형하여 이들의 학업을 돕기 위하여 본회는 장학제도를 마련한다.

2. 구 성

제1장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당연직 회장 부회장(상임) 전무이사 총무이사 경기이사의 회장이 위촉한 자 약간명.

장학 운영 위원회 위원은 7인 내지 9인으로 정한다.

3. 자 격

태권도 수련자로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이에 서 제외한다.

가. 중학교 1년부터 대학 3년까지의 학생이 아닌자.

나. 태권도 유단자가 아닌자.

다. 전체별 학년중 유급된자.

라. 연도중 협회 또는 소속에서 징계나 형벌상의 벌을 받은자.

마. 연도중 경기를 전종별 참가하지 아니한자

바. 지역 대회와 3회이상 출전치 아니한자.

4. 자 금

1. 장학금 연도 총액은 30만원으로 정한다.

2. 필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5. 장학금액 및 전형 요강

1. 16세급에서 각 체급별로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16명이 전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감소된인

원별로 한도액 내에서 할당은 증액될 수 있으나

1인당 3만원을 초과치 못한다.

3. 잔여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6. 구비 서류

장학금 수여 해당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적초본, 재학증명, 성적증명, 명함판 사진 2매, 경기성적 확인서

부 칙

이 규정은 1970년도분 부터 실시한다.

이에 미비한 점은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1970년도 장학생 대상자 명단

1970년도 최우수 선수 명단

성 명 소 속

1 이 상 철 우석 대학교

2 양 동 철 우석 대학교

1970년도 우수 선수 명단

성 명 소 속

1 김 정 훈 인천 동산고등학교

2 장 석 희 인천 동산고등학교

3 김 병 열 선린 중학교

4 김 규 성 우석 대학교

5 이 근 우 군산 중앙고등학교

6 박 태 왕 부산 덕원고등학교

7 강 명 조 동아 대학교

8 김 정 태 동아 대학교

9 송 요 식 동아 대학교

10 이 은 송 명지 대학교

11 장 재 우 홍익 대학

12 박 응 준 동아 대학교

투 고 환 영

태권도인의 지대한 여망으로 그간 창간을 서둘러 오던 계간 <태권도>가 창간되었습니다. 이에 태권도인은 물론, 모든 체육인 및 스포츠 애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울러 <태권도>지를 빛낼 원고를 많이 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대한태권도 협회 <태권도> 편집실

각종 태권도 대회

제42회 전국 태권도

승단 심사 대회

제42회 전국 태권도 승단심사 대회가 지난 2월 14일(일요일) 오전 10시에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 인원과 득점자는 다음과 같다.

총응심(總應審)인원 316명

남자 296명

여자 17명(초단)

외국인 3명

단별 초단 197명

2단 51명

3단 30명

4단 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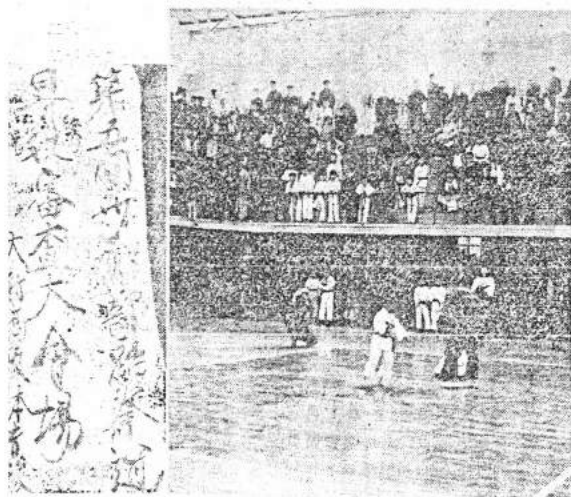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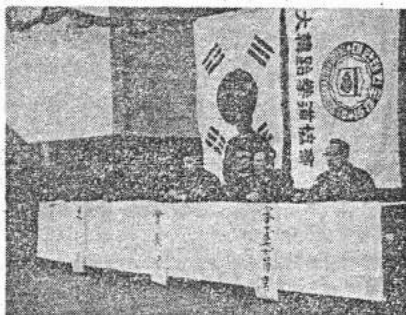
5단 20명

최고득점자 김동순(여자) 21400점

차점자 박원원(남자) 380점

박철희(남자) 380점

송성환(남자) 380점



제5회 소년부 심사 대회

제5회 소년부 심사대회를 3월 14일(일요일) 오전 10시에 대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다음과 같이 열렸다.

총응심자 355명

남자 3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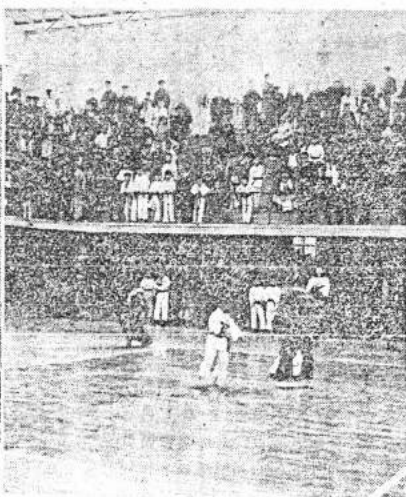
여자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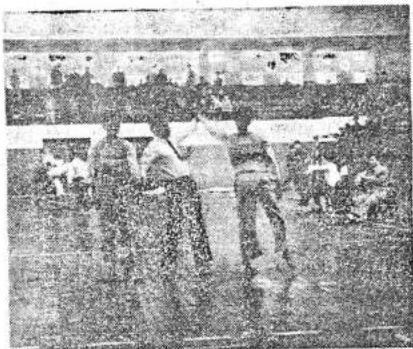
단별 전원 초단

최고득점자 윤태오(무학관) 400점

차점자 차근환(창무관) 395점

이민수(지도관) 395점





■ 1971년도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

3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양일간 한성 여고 체육관에서 전국 신인 선수권대회를 열었던 바 그 전적은 다음과 같다.

□ 참가인원 318명

체 급	종 기 부			
	1 위	소 속	2 위	소 속
핀	심현기	지도관 지소사농고	조덕현	지도관 청수중전고
플라이	유동준	지도관 지등산고	김상배	지도관 지신이중고
밴 텀	조동수	강덕원	정조환	한무관
페 더	한광열	지도관 지주농고	김명훈	지도관 지등산고
라이트	안규현	지도관	박영길	지도관 지등대부고
웰 터	김광호	지도관 청성도관대	지양호	지도관 지등대부고
미 들	안장식	무덕관 무광성고	임인수	창무관
헤 비	구진희	지도관		

체 급	종 기 부			
	1 위	소 속	2 위	소 속
핀	성재준	지도관 지유석대	이경호	지도관
플라이	양증호	지도관 지원광대	한동식	창무관
밴 텀	유의철	지도관	이춘식	지도관
페 더	이범타	지도관 청성도관대	이창재	한무관
라이트	김훈기	지도관	김승한	창무관
웰 터	이영학	지도관	김행수	지도관
미 들	신석기	한무관		
헤 비	정홍진	지도관	최성환	무덕관

1971년도 사업계획

협회는 197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월	일	사 업 명
1	25-30	심판위원 자격자 교육
2	13-14 22-27	제42회 전국 승단심사대회 전국 지도자 강습회
3	8-13 13-14 26-28	심판위원 자격자 교육 제5회 소년부 승단 심사대회 1971년도 신인 선수권대회
4	1-30 17-18 23-25	외국 선수단 초청 친선 경기대회 제43회 전국 승단 심사대회 해외파견 선수 선발대회 제1차
5	1-2 7-9 14-16 21-23 28-31	제6회 소년부 승단 심사대회 제2회 전국 국민학교 학생 여자 개인 선수권대회 해외파견 선수 선발대회 제2차 제6회 대통령기 쟁탈 단체대 해외파견 선수 선발대회 최종
6	4-6 12-13 19-20 21-26 30	제9회 전국 중·고등 및 대학 체육대회 제44회 전국 승단심사대회 제4회 주한 외국인 개인 선 권대회 전국 지도자 강습회 포상 도별 추진완료
7	3-4 9-11 19-24	제7회 소년부 승단 심사대회 제6회 전국 중·고등 및 대학 인 선수권 대회 심판위원 자격자 교육
8	12 16-21	서울 특별시 경찰무도대회 전국지도자 강습회
9	5일간 11-12 17-19 30	서울 특별시 체육대회 결 제 회 전국 체전 서울예선대회 제45회 전국승단 심사대회 1971년도 전국 국민학교학생 여자부 우수선수권 대회 포상 심사완료
10	5일간 16-17 21	제52회 전국 체육대회 포상 수여식 제8회 소년부 승단 심사대회 전국경찰 무도대회
11	1-6 12-14	심판위원 자격자 교육 1971년도 한국우수선수 선발 회
12	4-5	제46회 전국승단 심사대회결 9회 소년부 승단대회
1 12	수 시	세계각국에 태권도 사업파견 국내 선수단 경기차 해외파견 태권도 서적 및 간행물 발행 영화제작 태권도 센터 건립 추진

야 담 ◇

큰기침 세 번에

안도 사람들은 평안감사가 갈릴 때마다

이번 감사는 능히 김이방(吏房)을 죽일 수 있을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차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으로 있음을 기화로 부녀자를 못살게 굴었으며 선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는 등 행동이 방자하기가 형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진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나 켈일인지 역대의 감사들은 김이방을 잡아 가두 가도 몇마디 말만 듣고는 석방해 주곤했다. 역 사사어는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한 이유는 그에게 이 같은 세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 아들은 능 나마지기의 원수를 갚을 만한 잔인한 위인들이어서 사 람들은 모두 공포에 쌓여 있었으므로 새로 부

이오친감사에게도 큰 기대를 갖지 못했다.

용! 이번 감사도 그저 그럴테지' 하는 것이 그 곳 들의 짐작이었다.

런데 새로 도입한 감사는 김이방을 잡아다 형틀

고 문초하기를

어 이놈! 백성의 고혈을 빨아 탐학이 컸으니 만년

어 마땅하다"

형이 추상갈았다. 이에 이방 집가는 태연히

소인예전 아무런 죄도 없읍니다"

러런 죽일놈 왔다. 마지막으로 할말은 없느냐?"

사는 정말 죽일 모양이었다. 김이방은 약간 속이

면서도 태연하게 아들 삼형제를 보고싶다고 말

다.

아들이 들어왔다. 집가는

아비 죽은후에 언제 원수를 갚겠느냐"

오늘밤을 넘기지 않겠읍니다"

오오! 과연 내 아들들이다"

김가는 이감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역대의 감

있으려니까

"저 죽이랍시다."

하는 형방비장의 전갈이 떨어지고 이에 용기를 내어

당장 물고를 내고 말았다.

"큰일났다. 오늘 밤 안에 원수를 갚겠다고했는데 두

고짜야지. 하여간 평양의 무서운 화근이 없어졌으니

이제야 마음놓고 편히 살게 되었구나. 이번 사또야

말로 명사또구나."

사람들은 사또의 신변이 걱정스러웠으나 한편 화근

이 없어진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날밤 선화당 높은 담을 뛰어넘은 괴한 세 명이 있

었다. 그들은 몸에 각각 비수 한자루씩을 품고 있었

다. 캄캄한 밤중 아무도 이들이 그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선화당까지 침범 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들

은 차례로 십일감사의 침실을 엿보았다. 먼저 형이 침

실에 뛰어들기 위해 장지문을 살며시 열려는 찰라 안

에서 큰기침이 한번 나더니

"거 누구냐."

하는 우렁찬 기합소리가 터져나왔다. 부도(不道)는 정

도(正道)의 흉도 내지 못하는 법! 말아들은 힘에 겨

운 긴장 때문에 그만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다.

들쭉는 말뚝을 기다리다 못해 침실로 접근해서 발을 밟

추는 순간 이번에도

"거 누구냐."

하고 우렁찬 기합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둘째는 기침의 위압 소리와 형의 시체를 발견한 충

격으로 그만 졸도하고 말았다. 한편 밖에서 기다리던

막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두 형의 뒤를

이어 비수를 들고 침실에 뛰어들려는데 '에헴'하는 기

침소리와 함께

"거 누구냐."

하는 소리가 온 집안이 흔들리도록 울려 나왔다. 두 형

의 시체와 함께 그도 그 자리에 쓸어진 것은 말할 나

위도 없다.

이튿날아침 관속들이 심히 걱정하고 있는데 안에서

사또의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다.

"제 누구 없느냐. 여기 송장 치워라."

하고 계속 끝없는 소리가 들려나왔다.

"사또는 귀신이다"

동원 안팎은 물론 평양성중에는 한동안 이오친감사

의 칭송이 자자했으며, 특히 그 무서운 재주에 놀라

지 않은자가 없었다. 담력과 인격의 힘으로, 그러니까

정도로 부도를 물리쳤던 이오친감사는 오성 부인군이

항복의 후손으로 그는 후에 벼슬이 판서에 올랐으며

영묘조의 병신으로 이름이 높았다.

체 육 인 현 장

체육은 인간을 '글세고 아름답게 가꾸어 쓸모 있게 하는 정화 과정이다.

그러므로 참된 체육은 참된 인간 생활의 기도가 되어 슬기와 용기로서 행동하고 끈기와 희생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우리 국민은 출신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참된 체육인이 되어 문화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경기를 사랑하고 즐기며 사욕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성과에 만족한다.
2. 경기를 하는 사람은 심판의 판정에 복종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승패에 구애됨이 없이 정정 당당히 싸운다.
3. 경기를 심판하는 사람은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리고 경기를 명랑하게 이끈다.
4.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은 원만한 인품을 갖추고 항상 과학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지도에 힘쓴다.
5.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정신과 탁월한 기능에 감탄과 성원을 보내며 누구에게나 공정 무사한 태도를 갖는다.

위의 모든 체육인은 어디에서나 일상 생활에 모범이 되고 밝고 바른 일의 역군이 된다.

계간 <태 권 도> 창간호

1971년 3월 25일 등록 제마-199호

1971년 4월 15일 발행

발행결 편집인 김 윤 용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19

발행처 대한태권도협회

직통 ☎2374

전화

☎5241~9 구내65번

인쇄소 경화당인쇄주식회사

값 100 원

<본지는 잡지윤리위원회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일대는 꽤 오래 되었다. 많은 진통 끝에 고고소리는 천지를 울렸다.

이제 산고는 끝이 났다.

용모가 어떠한 성격이 어떠한지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얼들여 기는 것부터 걸음마·뛰기로 발달한다.

차차 성장함에 따라 용모와 성격이 그 윤곽을 나타낼 것이다.

▶ ...창간호에는 태권도 사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래된 역사를 발굴해 내었음은 우리 태권도계의 일대 경사라 아니할수 없다.

▶ ...더우기 130만 회원과 세계 도처에서 요망하던 기술강좌가 기초에서부터 많은 페이지를 차지 하였

으나, 다음 호부터는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할 것이며 기술연구에 한 것도 더욱 치중한 것을 다짐한다.

▶ ...전국 회원으로부터 많은 원

문 보내주어 크게 감사한다.

창간호에 보내주신 원고 다 실지 못함을 사과하 아올터 앞으로는 독자 투란을 특별히 마련하여 지을 최대한으로 활용

많은 독자의 참여를 기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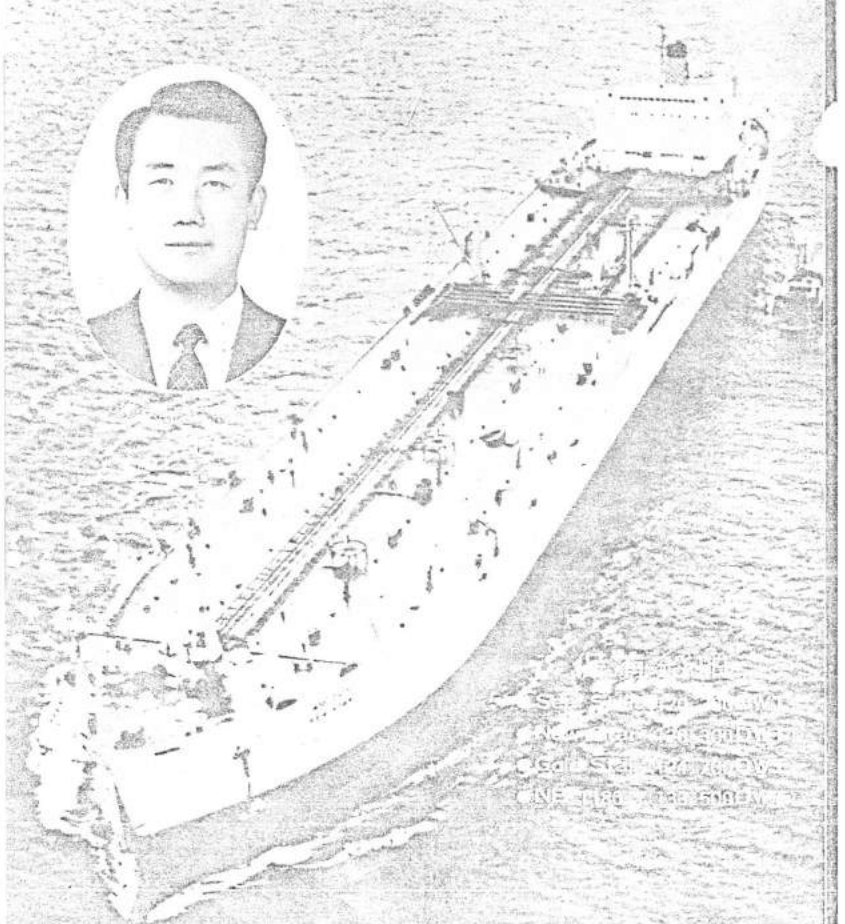
▶ ...앞으로 명없이 건강하게 지수 있는 묘방을 함께 연구하여 것들 서로 다짐하여야 겠다.

▶ ...우리<태권도>를 키워주는 등서 광고로 협조해주신 기업주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편집위원

편집을

마치고



==S== 三井物産株式会社

三井物産株式会社 三井物産株式会社
〒100-8588 東京都千代田区千代田 1-1-1
TEL 03-6171-1111 FAX 03-6171-1111

국기태원도

1971년 3월 20일

대통령 박정희



이조 정조대왕의 명으로 편찬된 「어정 무예 도보 통지」의 표지 (호문록)와
규장각의 도장, 「규장지도」라고 새겨져 있다.

미국 워싱턴에 도장을 개
설하여 8년간 미국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국위를 선
양하다가 잠시 귀국한 김기항
씨가 회장으로부터 기념 트
로피를 받고 있다. 좌로부터
엄운규 부회장, 김기항
씨, 김운용 회장, 홍충수
전무이사, 김순배 경기이사.



미국 오하이오 주
체육단 단관으로 태권도
하고 있는 전계배씨
으로부터 기념 트로피
를 받고 있다. 좌로부터 김순배
이사, 이병로 총무이사,
부회장, 전계배씨, 홍
충수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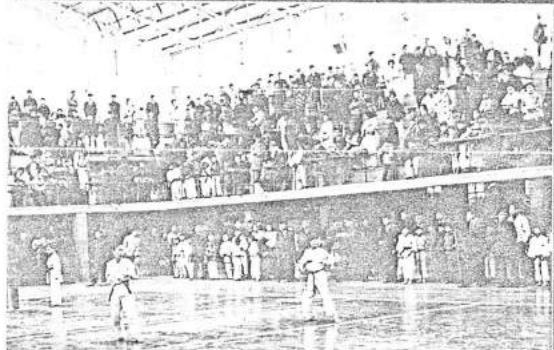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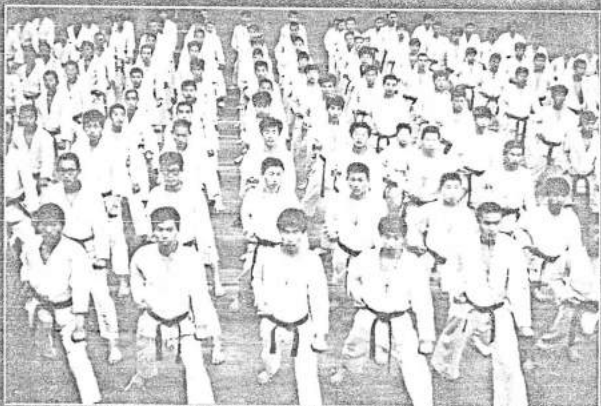
미국에서 잠시 모국을 방
문한 김기항, 전계배 양씨와
함담하는 모습. 좌로부터 김
기항, 전계배씨와 이종우씨,
홍충수 전무이사.





← 1971년도 신인 선수권대회의 막이 오르고 선수대표가 회장에게 선서하고 있다.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2월~28일 양일간 열린 동계 참가한 선수 전원이 기쁘게 웃을 줄고 있다.



← 어린이 등반신자대회에서의 한심사 광경. 1971년 3월 14일 대신고교 체육관에서.

祝 創 刊

製鐵・製鋼・圧延을 一貫工程의 施設을
갖추고 美國・西獨에서 訓練된 熟練工이
生産하는 國際水準의 鉄鋼製品은 모든
構造物의 安全도와 堅固性을 保障해 드
립니다.

製 品 案 內

各種鉄鉄・鋼塊・비릿트・쉬트바・円
型鋼・丁型鋼・C型鋼・I型鋼・輕レ
일・鉄筋・하이바鉄筋・鋼板・珪素鋼
板・床用鋼板・酸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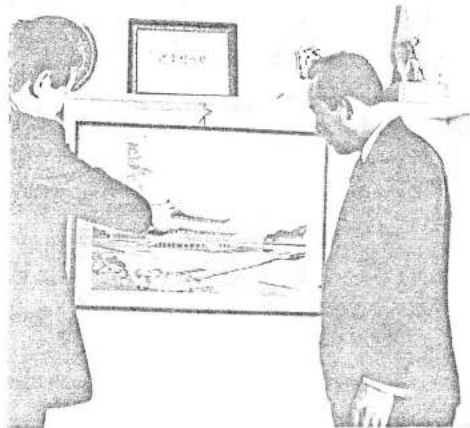
仁川製鉄株式会社

代表理事 社長 宋 堯 讚
理 事 副社長 金 貞 武

본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58-7 전화 (4) 1221-9

공장: 인천 남동구 남동동 11-1 전화 (3) 0081-9

이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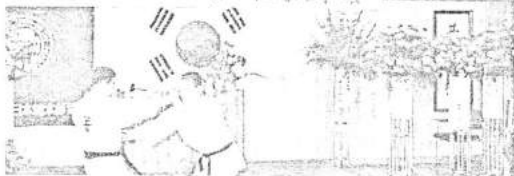


태권도 중앙도장 전립 계획을 숙의하는 이종우씨(좌)와 홍중수 전무이사.

를 배우기 위해 우리
온아온 외국인 선수
를 환영하고 있다. 좌
완복 편집장자, 아이
크의 미셀 부크시에,
이런 왕실경호관
지, 하산 자르롬페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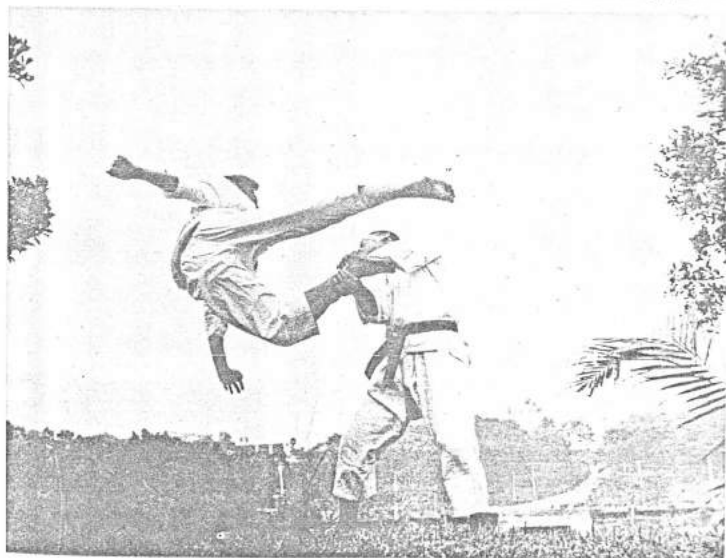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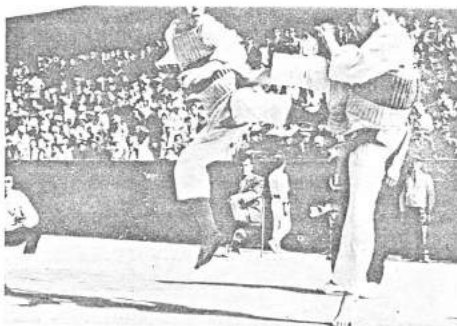
大田府家道日本親善和協会結成記念演武大会



대한 태권도 일본 총본부 협회의 결성기념 연무대회장경.

서러일

태권도 대전 광경. →



↑자유중국
타이베이(臺北)
에서 활약
중인 사범들
의 시련한 표
기. 노효영씨
(좌)와 홍성
인씨.

→
역시 타이베이의 한 야외
동장에서 열린 기본형.

